

사랑의열매

ISSUE 143
2019 MARCH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작지만 위대한 나눔, 함께 할까요?



제주 일도초등학교 4학년 1반의 특별한 기부
“나눔은 풍선같아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경기 200호 아너 박은숙 씨
“직원들에겐 알리지 않았지만 거실 한가운데엔 사랑의열매가 있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특집은 작지만 소중한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대단한 무엇을 주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 그 작은 나눔의 시작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의열매 공식 SNS에서는 지난 2월 사랑의열매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이 따뜻한 조언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작은 나눔의 중요함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이 많았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까요?



열매야~ 사랑의열매야~!

2019년 새해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아프지 않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멋진 열매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 우리에게겐 사소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열매가 함께 노력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선물 해 줄 수 있기를 바랄게
작성자_임수민 '사랑의열매에게 말하면 돼~지_ 열매야 새해에도 부탁해!' 중에서

사랑의열매 공식 SNS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페이스북 @chestkorea 트위터 @nanumin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oiawOg



나눔태그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 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의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CONTENTS



사랑의열매

vol. 143 2019 / 03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9년 3월 / 통권 143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지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경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집 - 작지만 위대한 나눔

04 독서 기부로 나눔 실천한
제주 일도초등학교 4학년 1반

08 1만 8,000개 행운을 전달한
경남 산청동의를보감촌

10 몸짱 검거왕의 재능 기부,
박성용 경사

12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한국지역난방공사 박은숙

16 이야기가 있는 현장
이웃과 함께 준비하는 따뜻한 설맞이

20 땀큐 사랑의열매
사단법인 다문화교류네트워크

24 착한기업
SGI서울보증,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



28 나눔리더
남성 듀오 BOK 멤버 리누

30 착한가정
7년 만에 찾아온 행복,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32 나의 '첫'사랑
롯데지이엔츠 손아섭 선수

34 나눔 리포트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해법 '비영리스타트업'

36 장석주의 독서 처방전
겨울을 아직 벗지 못한 당신에게

38 박미향의 '먹을 수 있어 좋구나'
배추적, 밍밍하고 습습한 그맛... 아버지의 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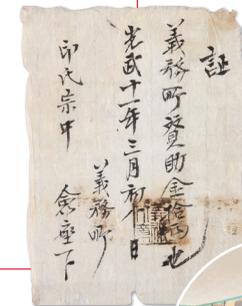
40 나눔 히스토리
국채보상운동 112주년의 발자취

42 이달의 소식
사랑의 온도 101.1도로 마무리

44 전국 뉴스
중앙회, 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6 독자 페이지





독서 기부로 나눔 실천한 제주 일도초등학교 4학년 1반

“나눔은 풍선 같아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지난 1월, 제주 사랑의열매에 의미 있는 기부금이 전달됐다. 제주 일도초등학교 4학년 1반 학생들이 1쪽에 1원씩, 자신이 1년 동안 책을 읽은 만큼 성금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기탁한 것. 책 한 장에서 싹튼 작은 나눔의 씨앗은 그 무엇보다 푸르고 울창한 나무로 자라났다.

It's not how much we give, but how much love we put into giving.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 마더 테레사

우리는 ‘나눔’ 앞에서 자주 머뭇거리다. ‘가진 게 너무 작아 나눠봤자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나눌 게 별로 없어서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데...’

하지만 그동안 사랑의열매를 통해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의 말을 돌아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줄 수 있는 게 적다고 기부를 망설이지 마세요. 작은 손길이 모여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문장은 어쩌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나눔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인지 모른다. 이미 그 문장을 행동으로 옮기고, 작은 것을 차곡차곡 쌓아 나눔의 행복을 깨우친 아이들이 있다.

책 1쪽당 1원씩, 자신이 책을 읽은 만큼 성금을 기부한 제주 일도초등학교 4학년 1반 아이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제 5학년이 되어 새 학기를 준비하는 방학 기간, 학교에서 만난 열두 명의 아이는 뛰어놀 때는 한없이 친진난만하다가도 책을 펼치자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를 반짝였다. 아이들에게 독서 기부를 실천한 지난 1년은 책 한 장 한 장에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담아 읽어내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 1년의 결실은 작지만 큰 열매가 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졌다.



1 함께 책을 읽고 있는 좌연순 교사. 왼쪽부터 조수연, 고승연, 김건우, 강다윤 학생 2 독서 내용을 기록한 독서 플래너. 언제, 어떤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아이들이 직접 작성했다.



1쪽에 1원씩

머리에는 지식, 마음에는 나눔의 기쁨을

학생들에게 독서 기부를 먼저 제안한 것은 지난해 답임을 맡은 좌연순 교사다. 오래전부터 독서 지도와 기부에 관심을 가져온 좌연순 교사는 근 10년간 자신이 맡은 학급 아이들과 꾸준히 독서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사실 1쪽에 1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모아 놓으면 아이들도 깜짝 놀라요.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것. 그리고 기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언젠가 또 기부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좌연순 교사)

선생님의 제안을 처음 들었을 때 4학년 1반 학생들은 신기하다는 생각과 함께 기대감이 들었다고 한다.

“독서 기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책을 읽은 쪽 수만큼 1원씩만 모으면 되는 거여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고승연)
 “원래 평소에 책을 많이 읽거든요. 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뭔가 기대됐어요.” (윤승연)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부지런히 책장을 넘기며 머리에는 지식, 마음에는 나눔의 기쁨을 쌓았다. 한편으로는 독서

기부와 함께 또 다른 기부 활동도 실천했다. 교실 앞 책상에 저금통을 마련해 군것질을 하거나 장난감을 살 돈을 100원, 1,000원씩 아껴서 성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1년 후, 열두 명의 아이가 독서 기부와 저금통에 모은 성금은 21만 4,220원에 달했다. 액수로는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결실이었다. 적게는 몇천 쪽, 많게는 3만여 쪽에 이르는 분량을 읽은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이 이룬 성과에 놀라움과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독서 기록한 걸 다 끝날 때 계산해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모일 줄 몰랐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했어요.” (김현창)

열두 명의 노력으로 모인 성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4학년 1반 학생들과 좌연순 교사는 제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사랑의열매에 성금을 전달했다. 교사와 학생이 1년 동안 함께한 아름다운 나눔의 여정이 빛을 발하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윤승연, 최성빈, 고승연, 강다운, 김주현, 김현창, 고준혁, 김건우, 김병곤, 임성혁, 조수연, 임서준



수 있다”라고 자주 이야기한다는 좌연순 교사의 말이 절로 이해되는 모습이었다.

나눔의 씨앗, 더 큰 나눔의 나무로 자라나길

“나눔은 풍선 같아요. 왜냐하면 기부를 하고 나면 뿌듯하니 까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김병곤)

“나눔은 사랑이에요. 나눔을 하는 순간엔 우리가 정성껏 사랑을 다해 하기 때문이에요.” (최성빈)

“나눔은 웃음이에요. 나눔을 주고받는 사이에 웃음꽃이 피는 것 같아요.” (고승연)

“나눔은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의 열매가 조금 이나마 있을 때 기부를 할 수 있거든요.” (김현창)

“나눔은 씨앗이에요. 씨앗을 땅에 심으면 나무가 돼 또 다른 씨앗을 퍼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눔을 하면 그 하나의 씨앗이 나무가 되고, 또 씨앗을 퍼뜨려 더 큰 나눔의 나무가 자라날 거라 생각해요.” (윤승연)

독서 기부를 마친 소감과 함께 “나눔을 다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든 말하고 싶냐”고 묻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양각색 대답이 쏟아졌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는 나눔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좌연순 교사는 “작은 것도 쌓이면 큰 것이 될 수 있으니 누구나 주저하지 말고 기부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애정 가득한 희망도 내비쳤다.

“어릴 때 읽은 책이 커서도 기억에 남는 것처럼, 어릴 때 기부한 경험이 아마 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테고, 나중에 자녀에게도 자신이 경험한 기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기부가 소중한 유산으로 전해지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좌연순 교사)

이들의 기부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아이들임에도 작지만 확고한 생각과 의지가 모여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가진 것이 적다고 부끄러워하며 나눔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나눔의 첫걸음을 내딛어보는 것은 어떨까. ♡

군것질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기부를 하면 무엇이 좋은지, 하면서 힘들지 않았는지 묻자 아이들은 “책 보면서 지식도 쌓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대답했다.

“기부를 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아프고 기회가 없어서) 별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부하는 게 행복해요.” (강다운)

“편의점에서 군것질하거나 불량 식품 사 먹는 것보다 기부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김병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4학년 1반 학생들 사이에선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고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넘쳐 흘렀다. 잠깐 이동할 때도 뒤처지는 친구는 없는지 살뜰히 챙겼고, 도시락을 먹을 때도 친구가 밥을 남기지 않는지 살피며 맛있는 반찬을 양보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돈뿐 아니라 자신의 재능,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자그마한 배려도 기부할

경남 산청동의보감촌

건강하게, 복되게~ 좋은 기운 전해주세요!

이탈리아 로마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듯 한방 테마파크인 산청동의보감촌에는 행운을 빌며 동전을 세우는 복석정이 있다. 이곳에 차곡차곡 쌓인 행운 가득한 동전이 지난 2월 사랑의열매에 전달되었다.



‘복(福)’을 세우는 동전

백두대간의 기(氣)가 응집되어 우리나라에서 기가 가장 좋은 곳에 산청동의보감촌(이하 동의보감촌) 한방기체험장이 들어섰다. 한방기체험장에는 3개의 혈자리가 있는데, 각각의 자리에 신비로운 기바위를 세워두었다. 돌부리에 이마를 대고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돌 거울 ‘석경’, 황매산 신촌마을 뒷산의 신석(神石)이자 수호석이었던 거북이 모양의 ‘귀감석’, 그리고 복을 담은 그릇 ‘복석정’이다. 바로 이 복석정에 모인 동전 1만 8,000여 개 약 175만 원이 경남 사랑의열매에 전달됐다. 2013년 150만 원, 2014년 151만 6,070원, 2017년 132만 6,260원이 산청군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졌다.

복석정 행운 동전의 시작은 매우 재밌다. 복석정은 솔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의 솔바위 모양으로 하늘과 땅에서 충만한 기운을 담고 떨어놓았다가 사람에게 보충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복석정을 끌어안거나 정성스럽게 만지며 좋은 기운을 전달받고 소원을 빌곤했다. 그러던 중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당시 한 관광객이 소원을 빌며 바위에 동전을 세웠다고. 이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따라 하기 시작하면서 복석정 바위 위에는 각자의 행운을 담은 동전이 모이게 되었다. 실제로 행운을 가져다준 사례가 있는지 관계자에게 물었다. 직접 들은 경우는 없지만, 이따금 좋은 소식이 입소문으로 전해진

산세가 수려한 산청동의보감촌



다고 했다. 최근에 다녀간 몇몇이 승진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귀땀했다.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1만 8,000여 개 동전에는 행운이 깃들어 있으니, 그것을 전달받는 이웃들에게도 좋은 기운이 전달되지 않을까.

블로문을 지나 만나는 건강 여행

동의보감촌은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2014년에 정식 개장했다. 4년 연속 최우수 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의 주 행사장으로, 2017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웰니스 관광 25선’에 이름을 올렸다. 동의보감촌은 영험한 기운이 가득한 특별한 마을인 ‘특리’에 자리 잡았다. 지리산의 기운이 이어진 왕산과 팔봉산이 에워싸고 있으니 특별할 수밖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공기에 좋은 기운까지 더해 지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대한민국 힐링 여행 1번지’다.

전통 의약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엑스포주제관’, <동의보감>을 볼 수 있는 ‘한의학박물관’, 앞서 소개한 ‘한방기체험장’ 등에는 한의학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다. 특히 동의전에서는 한방 온열 체험, 약초향기 주머니 등 차별화된 한방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지리산 자생약초 160여 종이 식재된 ‘산청약초관’, <동의보감>의 신형장부도를 형상화해 만든 휴식 공간 ‘한방테마공원’,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즐기는 ‘허준순례길’은 건강 여행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한방자연휴양림, 한옥스테이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고, 여름에는 숲속 수영장, 가을에는 만개한 구절초와 산청한방약초축제를 즐길 수 있어 계절별 테마 여행도 가능하다. 동의보감촌 초입에는 이 문을 지나가면 늙지 않는다는 ‘블로문(不老門)’이 있다. 들어갈 때 한 번, 영산의 기운을 물씬 느끼며, 한의학을 경험하고 난 후 나올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이나 ‘블로문’을 통과하게 되니 건강을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웬지 몸과 마음이 정말 늙지 않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이 든다. ❀



위) 솔바위가 자리한 복석정
아래) 행운의 동전을 올리고 소원을 비는 관광객

MINI INTERVIEW

“모두의 바람이 담긴 행운의 동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길”



산청군청 한방향노화실 김요운 주무관

Q 사랑의열매에 동전을 기부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열려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셨어요. 당시 복석정에 행운을 비는 분이 많아서 동전도 많이 모였죠. 처음에는 모은 동전을 어떻게 쓸지 내부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어디에 기부할 것인가 후보군 다섯 곳을 선정한 후 산청군청 주민복지과와 상의했어요. 그때 경남 사랑의열매에서 산청군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산청군에서 모은 동전이 기왕이면 산청군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사랑의열매에 전달하게 되었어요.

Q 기부 후 산청동의보감촌을 찾는 관광객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건너 듣는 이야기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나눔 활동에 보탬이 된다고 하니 동전을 내놓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하시고요. 또 요즘 동전을 잘 안 쓰고 집에 놓아두는데 이렇게 동전이 선순환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어요.

Q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달한 동전은 개인이 아닌 온 국민이 모은 것이에요. 그러니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몸짱 검거왕의 재능 기부, 박성용 경사

도움의 손길 잊지 않은 열 살 소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였던 작은 소년은
그 시절 국가에서 받은 도움을 반드시 돌려주리라
마음먹었다. 소년은 자라 4년간 범인 검거율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경찰이 되고,
경찰관 달력을 통해 나눔의 열매를 맺는다.



소년, 새로운 꿈을 꾸다

2008년 경찰이 된 부천 오정경찰서 소속 박성용 경사(이하 박 경사)는 어린 시절 꿈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운동에 소질도 있었고, 촉망 받는 운동선수로 학교의 기대도 컸다.

“초등학생 때 육상을 했어요. 중학교에 가서는 큰 키 덕분에 농구선수로 뛰었고요. 좋아하고 잘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만뒀어요. 그때 감독님이 공짜로 해도 되니 운동을 계속하라고 하셨지만, 집안 형편상 제 욕심만 부릴 수 없었죠.” 박 경사 나이 겨우 열 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 혼자 가정을 꾸려야 했기에 형편은 무척 어려워졌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나라의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운동을 계속 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국가대표가 꿈이었던 박 경사에게는 건디기 힘든 선택이

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대에 들어서면서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그에게 의사는 헬스를 권유했다.

박 경사는 건강을 위한 운동이었기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운동에 매진했다. 그의 우직한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운동은 그에게 건강을 되찾아주었고 멋진 몸을 선물했으며 나아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다.

“어릴 때 국가에서 받은 도움을 꼭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게 제 오랜 꿈이었어요. 가진 건 넉넉하지 않으니 자신 있는 몸과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 사회에 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다짐, 빛을 보다

처음 달력을 만들 생각을 한 것은 2013년이다. 우리나라에 서는 아직 소방관 달력조차 나오지 않은 때다. 우연히 해외

몸짱 소방관들이 달력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기부한다는 소식을 들은 박 경사는 오랜 염원의 실마리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운동으로 다진 몸으로 나눔을 실천할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다. 당시엔 웨이트 트레이닝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던 터라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더구나 공직자인 경찰관이 전문 모델도 아니면서 맨 몸을 드러내는 달력을 만들다니, 주변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오히려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더 컸다.

“그렇다면 나 혼자 사비라도 들여 만들겠다 생각했죠.(웃음) 그런데 생각처럼 잘되지 않았고, 유아무야 무산됐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꼭 달력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포기하지 않았죠.”

2018년은 포기하지 않은 그 다짐이 빛을 보는 해였다. SNS에 경찰관 달력에 대한 글을 올린 게 그 시작이었다. 반응은 2013년과 달리 뜨거웠다. 그의 좋은 취지에 50여 명이라는 많은 경찰관이 동참의 뜻을 밝혔다. 반면 경찰 내에서의 반응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걱정 어린 시선이었다. 하지만 박 경사의 좋은 의도에 공감해주신 사장님이 적극 나서서 경찰청을 설득하고 굳건한 지지로 도움을 주었다.

오랫동안 꿈꾸던 나눔, 결실을 맺다

전국에서 선발된 19명의 경찰관은 근무지만큼이나 다양했다. 운동을 했던 사람,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 계속해오던 사람 등 다양각색의 경찰로 구성됐다. 이들과 함께 박 경사는 5월부터 다이어트와 더불어 본격적인 운동에 돌입했다. 사흘에 한 번 밤을 새워야 하는 일과 꾸준히 해야 하는 운동을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그런 우여곡절과 준비의 어려움 속에 마침내 세계 최초 경찰관 달력을 세상에 선보였다. 처음 달력을 만들기 전에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컸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박 경사는 혼자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고 말한다. 경찰 업무와 달력 준비로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해 전해 주

던 아내의 조용한 응원이 없었다면 결코 달력을 만들 수 없었을 거라면서 말이다. 박 경사는 이번 프로젝트에 기꺼이 재능 기부를 해준 사진작가의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경찰관 달력은 작지만 뜨거운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함께 만든 결과 그 자체인 셈이다. 판매 수익금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전해진다.

“범죄자 중에는 어릴 때 아동학대를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 아이들을 지켜줬다면 커서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현장에 나가면 그렇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만납니다. 이제 세 살 된 딸아이를 키우는데, 그런 현장을 마주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박 경사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경찰관 달력을 만들어 기부할 생각이다. 열 살 소년은 자신이 받은 도움의 손길을 잊지 않았다.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잊지 않았다.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잘 자랐으며, 마침내 아름다운 나눔의 열매를 맺었다. ♣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보디빌딩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박성용 경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박은숙

“직원들에게엔 알리지 않았지만 거실 한가운데엔 사랑의열매가 있습니다”

제아무리 체력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 질주하다 보면 언젠간 숨이 턱까지 차올라 멈춰야 하는 순간이 온다. 박은숙 씨도 그랬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목표 지점까지 얼마나 빠르게 갈 것인지가 아닌,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돌려주는 것. 그녀의 아들과 남편도 그녀의 선택에 흔쾌히 찬성하며 조용한 응원을 보냈다.

인생 전반전을 마치고

지난 1월 7일 박은숙 씨가 경기 사랑의열매에 아너 소사이어티(이하 아너)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경기 200호의 주인공이 되었다. 특히 경기 사랑의열매에서는 2008년 처음 아너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이 운영된 이후로 13년 만에 200호 회원이 탄생한 터라 그녀의 가입이 어느 때보다 반가웠다. 이런 뜨거운 반응과 달리 박은숙 씨의 지인들은 그녀의 아너 가입 소식을 아무도 모른다. 그녀가 전혀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너 가입 소식이 몇몇 언론에 실렸는데, 마침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기사를 보고 아는 체를 했다.

“조용히 불러 모르는 척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 걸 보면 그 직원 입이 무겁네요.(웃음) 아너 가입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또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가입한 것도 아니고요. 굳이 내가 했다고 동네방네 떠들듯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크고 작은 나눔을 해왔지만 그렇다고 예전부터 아너 가입에 명확한 뜻을 품고 있었던 건

아니다. 기부와 아너 가입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품은 건 2년 전,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모든 것을 멈췄을 때다. 수술하고 몸을 회복하기 위해 오랜만에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 나이가 막 50대에 접어들 때였어요. 이제 인생 전반전은 지난 것 같고, 앞으로 후반전이 시작될 시점이라구요. 앞으로 후반전은 지금과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죠. 거창하지는 않아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후반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득 그동안 늘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그 보답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때 기부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죠.”

휴식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해 정신없는 날을 보내면서 막연히 품었던 기부에 대한 결심은 바쁜 일상에 묻혀 조금씩 희미해졌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남편 배규현 씨가 먼저 아너 가입을 권유하면서 나눔은 다시 또렷한 색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흔쾌히 “좋은 생각이야”라고 답했다.

“기탁금을 조금씩 나눠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던

“
이제는 사회에서 받은 혜택에 보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

“ 많은 직장인이 나눔에 참여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해요.”

데 저는 그냥 한 번에 다 냈어요. 마음먹었을 때 바로 하고 싶었어요. 그 시기가 지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인생이 내 의지대로 살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가입 현장에서는 나눔을 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서야 기쁨과 감격이 동시에 마음속에서 물결치듯 일렁였다. 인생을 살면서 ‘박은숙’이라는 이름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묵직한 숙제를 마쳤다는 느낌이 그녀에겐 잊을 수 없는 행복감을 안겼다.

나의 든든한 지원군 '두 남자'

박은숙 씨는 경기 사랑의열매 200호이자 전국 1997호로 아너에 가입했다. 경기 200호라는 특별한 의미를 얻었지만, 전체 2,000호를 앞두고 있던 터라 아쉬움이 있었을 터.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1997호를 받고 싶어 서둘러 가입했다고 답했다.

“아들이 1997년생이거든요. 기왕이면 아들과 관련 있는 숫자를 받고 싶더라고요. 가입하기 며칠 전 독감으로 엄청 아팠지만 미루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죠.”

박 씨는 1991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29년 동안 직장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여자는 결혼하면 당연히 퇴사하는 게 수순이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 일하려면 자기 삶의 어느 한 부분과 맞바꿔야 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해서는 경쟁력이 없었다.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모자라 일을 집에까지 가져가기 일쑤였다.

박은숙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족들의 엄마, 아내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회사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가슴 한구석에

는 항상 희생해준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었다. 사랑의열매 기탁금은 그녀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와 고양시 저소득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또한 아들 배종휘 씨를 떠올리며 결정한 일이다.

“아들을 키울 때 남편과 얘기했어요. 독립적으로 키우자고. 물론 제가 직장 생활 때문에 거의 방임하다시피 했지만.(웃음) 부모뿐 아니라 학교, 친구들,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들도 그렇게 큰 것 같아요. 요즘엔 가정의 경제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부디 우리 사회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공동체로서 기능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가입 현장에서 소감을 말하는데 문득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밀려와 울컥했다는 박은숙 씨. 지금은 군대에 있어서 아들에게 아너 가입 소식을 알리지도 못했었다. 한참 뒤에야 기부 사실을 알렸더니 아들이 “잘했네”라고 말했다고. 괜히 미안한 마음에 그녀는 아들에게 농담으로 “너한테 갈 수 있었던 돈인데 이번에 다 써 버렸네”라는 말을 건넸다.

“아들이 기특하게도 ‘나는 내가 알아서 해. 10월 한 장 안 쥐도 되니 엄마한테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써’라고 말하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가입식 당일 아픈 그녀를 위해 남편 배규현 씨가 운전기사를 자처하며 현장까지 동행했다. 가입식이 진행되는 내내 그녀의 남편은 뒤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었다. 경기 사랑의열매 직원들이 함께 사진을 찍으라고 권유했지만 끝내 거절했다. 모든 주목과 관심이 박 씨에게만 향하길 바라듯 말이다. 뒤에서 돕는 남편과 아들의 든든한 지원은 그녀가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시작

박은숙 씨에게 회사는 가족만큼이나 고마운 존재다. 일할 기회를 주고, 열심히 할수록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해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또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한 덕분에 차곡차곡 모아놓은 월급으로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회사야말로 아너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실질적 나눔 터전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성남시와 고양시는 저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효율 집단에너지사업의 모태가 된 곳인데다, 저와 남편의 근무지가 있는 의미 있는 지역이죠. 저희 회사가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나눔 활동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직장인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나눌 수 있는

나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들의 얇은 주머니 사정이야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선 기부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달리하면 가까운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내 아이와 같이 미래를 살아갈 친구들이잖아요. 아이의 친구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사회 전반이 건강해질 수 있죠. 아마 부모들 마음은 다 그럴 거예요. 나눔은 꼭 타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젊은 세대는 어릴 때부터 봉사 동아리, 기부 등을 직접 경험하며 자랐지만, 박은숙 씨와 비슷한 세대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나눔 문화를 접할 기회가 확연히 적었다. 그에 비하면 박 씨는 아주 좋은 나눔 토양에서 자랐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부모님께서도 성당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그녀 또한 어릴 때부터 나눔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 특히 부모님께서 그녀보다 두 살 많은 여자아이의 후견인이 되어 거의 가족처럼 자란 경험이 있다.

“처음엔 종교 단체에 기부할까 고민했어요. 좀 더 많은 아이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정 모금 기관인 사랑의열매에 기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결정했죠.”

지인, 동료 등 주변에 아너 가입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녀에게 사랑의열매가 무의미한 건 아니다. 박은숙 씨 집 거실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사랑의열매 모형이 자리하고 있다. “작고 귀여워서 갖다 놓았다”라고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전했다. 그 미소 너머 숨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다. 앞으로 진행될 인생 후반전에서도 계속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기리라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말이다. 🍀



행복중심생협과 사랑의열매 임직원이 함께 전국 한부모 공동생활가정에 보낼 '착한참치'를 선물포장했다.

이웃과 함께 준비하는 따뜻한 설맞이

귀성길에 오른 사람들, 풍성한 차례상, 따뜻한 떡국 등 설날을 생각하면 흔히 떠오르는 정겨운 명절 풍경이다. 하지만 소외된 이웃들은 이런 풍경에서 벗어나 있다.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국 사랑의열매에서 따뜻한 명절을 선물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혼자여도 씩씩한 엄마를 위한 '착한' 선물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특별한 나눔 행사가 열려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사랑의열매와 행복중심생협연합회(이하 행복중심생협)가 한부모 가정을 위한 명절 선물을 준비한 것. 참치 통조림 1,500개, 여성 속옷 450세트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를 통해 지방 소도시 소규모 한부모 공동생활 가정에 지원했다. 특히 이번에 전달하는 참치는 행복중심생협에서 판매하는 '행복중심 착한참치'로, 해양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전통적인 채낚기 방식으로 잡은 가다랑어로 만들어 국내 최초 지속 가능한 어업 수산물(MSC) 인증을 받은 상품이다. 자리에 참석한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귀한 참치를 지원해준 것과 희망2019나눔캠페인 마지막 날을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 인사를 건넸다. 모두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착한' 선물로 혼자 씩씩하게 아이를 키우는 용감한 엄마들에게 응원이 되었기를, 또한 그들의 설이 다른 때보다 더 따뜻했기를 바란다.



(오른쪽부터)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강영실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서울지회장이 설 명절 꾸러미 포장행사에 함께했다.

“저희 같은 여성주의 생협이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행복중심생협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적극 돕겠습니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강은경 회장

어떻게 이번 행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여성생활협동조합인 만큼 어려운 여성을 돕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결정했어요. 특히 착한참치를 조합원 외에 다른 분들과 나눔으로써 창립 30주년을 자축하고 싶었고요.

참여하신 소감은 어떤가요? 저희 임직원과 사랑의열매 직원 분들과 함께하니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내 손으로 포장하면서 한 번 더 나눔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오히려 저희가 더 힘이 나는 행사였어요.

한부모 가정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 자라요. 엄마가 당당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이면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나요.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 자신을 돌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며 당당하게 만드는 데 힘써주길 바라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늘 행사에 참석한 소감이 어떤지요? 한부모들은 명절이 되면 갈 곳이 거의 없어요. 오는 사람이 없어 더 외롭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엄마와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기뻐요.

한부모 가정에겐 이번 설 선물이 더욱 특별할 것 같아요. 명절에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 나의 삶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차가운 사회적 편견으로 상처 입은 엄마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지금의 삶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단순한 선물을 넘어 큰 관심이자 따뜻한 위로예요.

사랑의열매와 행복중심생협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가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열악해요. 지원과 후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죠. 그런데 사랑의열매와 행복중심생협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참치와 엄마들이 오랜만에 여성으로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속옷을 선물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엄마와 아이에게 특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것 같아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강영실 서울지회장

전국
19개 지역에
풍성함으로 가득

사랑의열매는 설을 맞아 전국 3,994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22만6,420여 명에게 생필품과 생계비 등 총 118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 곳은 서울 사랑의열매로 17억 3백만원이며, 인천 14억 4천만원, 중앙회 11억 2400만원, 부산 10억 5천만원 순이었다. 주요 지원 대상으로는 해당 지역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 노숙자, 쪽방거주민, 아동·청소년 등이 있었고, 소규모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그룹홈 및 지역 아동센터 등 기관에 지원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의 흥겨운 명절맞이

지난 2월 1일 인천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하 만수복지관)에서는 설맞이 행사로 '설맞이 흥! 한마당'이 열렸다. 행사는 '노래자랑 한마당'으로 시작됐다. 이어 곱게 한복을 입고 온 서창동 애플어린이집 아이들의 세배와 공연으로 명절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올망졸망 어여쁜 아이들의 재롱에 어르신들의 입가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어르신 200분에게 따뜻한 갈비탕을 대접했다. 거동하기 어려운 67세대에는 직접 배달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모든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후문. 덕분에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1 일대 소문난 명가수 명동준 할아버지 2 황옥순 할머니의 '잃어버린 30년' 노래에 장내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3 '노래자랑 한마당'에 참가한 어르신 일곱 분과 세배하러 온 애플어린이집 아이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4 여주자 할머니는 '안동역에서'를 불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명동준 할아버지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이번에도 설운도의 '원점'을 불렀어요. 명절이 되면 우울한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어울려서 즐기고 노래도 부르니 정말 좋았어요. 손승주 같은 아이들이 와서 세배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는데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명절에 다 같이 보낼 수 있는 행사가 종종 열렸으면 좋겠어요."

황옥순 할머니

"제 고향이 이북이에요. 한국전쟁 때 부모, 동생들 다 뒤로하고 혼자 내려왔어요. 예전 살던 고향집이 남아 있을지 소식도 모르고, 늘 그리지만 명절 때가 되면 특히 더 하죠. 이번에 무대에서 '잃어버린 30년'을 부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래도 내 노래를 듣고 같이 울어주고, 끝났니까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니 좋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 와서 세배하는 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들이 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세뱃돈이라도 준비할걸. 아직도 아쉬워요. 이런 행사 덕분에 우리가 호강하는 거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박민경 사회복지사

"인천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해준 덕분에 어르신들께 따뜻한 행사를 해드릴 수 있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 서로를 알고가고 더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 복지관은 인천 남동구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다녀가는 곳인데 인원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다는 거예요. 특히 행사를 하면 평소보다 많은 어르신이 찾아오시거든요. 앞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획 사업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신선설농탕과 함께하는 떡국 나눔 행사

설날을 맞이하여 사랑의열매와 신선설농탕이 서울 시내 저소득 홀몸노인 1,004명에게 떡국을 전달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사랑의 떡국 나눔'은 명절에 더 외로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떡국 떡과 사골육수, 배추김치 등을 담은 선물 박스 1,004개를 포장해 전달하는 행사다. 신선설농탕 직원과 대학생 봉사단 20여 명이 직접 떡국 재료를 포장하여 홀몸노인 가구를 방문해 선물을 전달했다. 한승옥 신선설농탕 이사는 "매년 좋은 일에 선뜻 참여해 주시는 직원분들과 대학생 분들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포장했으니, 분명 그 마음도 어르신들께 전달될 겁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 ❀



사단법인 다문화교류네트워크

공부도, 운동도 언니·오빠들과 함께여서 더 즐거워요!

다문화가정 아이를 위한 학습 기회와 고등학생들의 참된 봉사 기회를 이어주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다문화교류네트워크.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ICT 플랫폼을 구축해 더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STEAM 교육 중 하나인 축구교실 멘토멘티 워크숍

소외받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문화 예술 체험 교육으로 시작된 호프키즈(Hope Kids) 프로그램. 사단법인 다문화교류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적 접근 외에도 다문화 취약계층 가정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기틀이 되어줄 교과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

“다문화가정 아이와 봉사하기를 원하는 고등학생을 멘티와 멘토로 결연해주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일대일로 결연하면 아이 수준에 맞는 과외 학습처럼 케어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거든요. 봉사하는 아이도 어울리지 않는 봉사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보람을 느낄 기회를 갖게 되죠.” 사단법인 다문화교류네트워크 박정숙 단장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즐기는 캠프는 많다”며 “교과 공부를 가르치는 일처럼 아이 부모들이 하기 어려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한다.

다문화사회에 돌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돌볼 시스템이 부족하다. 2016년 여성가족부 추산에 의하면 결혼 이민자 가족은 총 15만여 명. 하지만 전국에서 운영되는 250개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한 곳당 평균 20명이 정원으로, 이 중 50%가 취약계층 자녀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전국의 취약계층 자녀 중 총 2,500명만이 혜택을 받을 뿐 다수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완전한 다문화사회예요. 다문화가정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 제공뿐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청소년 봉사자가 멘티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 가족과 접



STEAM 교육현장에서 만난 박정숙 단장과 다문화가정 참가자

하고, 환경을 알아가면서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멘티들도 ‘나를 케어해주는 좋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과 ‘엄마가 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박정숙 단장은 ‘꿈나눔 교육 프로젝트 호프키즈 찾아가는 공부방’은 단순히 다문화가정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보다 주위에 자신을 생각해주고, 자신을 위해 노력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자아 존중감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것, 주변에 나눔의 손길을 나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의 변화는 대상을 분리해 진행하는 프로그램 대신 함께 어우러질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설명한다.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완성된 효율성 높은 시스템

사단법인 다문화교류네트워크가 현재 진행 중인 ‘ICT 플랫폼을 통한 꿈나눔 교육 프로젝트 호프키즈 찾아가는 공부방’은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선도적 복지 모델화 사업 나눔과꿈 프로젝트 중 하나다.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과 사회복지, 문화예술 체험을 위해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은 지원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강화되었다.

“꿈나눔 공부방의 거점 확보와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한국형 융합인재 교육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ematics)을 통한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와 함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이기 위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ICT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했죠. 삼성전자의 도움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

로 진행하는 나눔과 꿈 공모사업을 통해 3년 동안 지원받은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프로그램 신청, 결연 매칭, 활동 관리, 의견과 경험 공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멘티 310명과 멘토 400명. 진행되는 지역은 결혼 이민자 50%가량이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 위주다. 그 외 지방 주요 거점인 충남 서산시와 경북 안동시에서 센터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멘티의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과 나이, 성향 등을 고려해 멘토와 이어줍니다. 멘토는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 같은 성적이 우수한 지역의 청소년 중 가르치는 봉사를 희망하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멘토 역할에 대해 철저히 사전 교육을 받은 뒤 멘티의 집을 방문해 영어나 수학, 사회같이 엄마들이 쉽게 봐줄 수 없는 과목의 공부를 도와주죠. 바빠서 일정이 안 맞을 때는 웹사이트 화상 전화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서는 멘티와 거점 센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많은 인원과 각각의 수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기존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홈페이지와 앱 구축 이후 봉사자들의 봉사 활동 계획서나 수업 일지, 수업 후기 제출 및 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 등 봉사자들의 활동을 모두 온라인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관리자도 원스톱으로 내용 확인이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 더 많은 공부방 거점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1 과천 과학관에서 진행된 STEM 교육 2 호프키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사단법인 다문화교류네트워크 사람들 3 멘티 집에서 일대일로 수업하는 찾아가는 공부방



다양한 창의력 교육과 정보 제공의 장, ICT 플랫폼

ICT 플랫폼 구축은 찾아가는 공부방 프로그램의 한 축인 '창의력 강화'를 위한 STEAM-UP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교육계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코딩 교육이나 융합 교육 같은 새로운 교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기초 학습 지원과 체험 학습 등의 유형이 많아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호프키즈는 아두이노(Arduino)*로 배우는 코딩의 세계나 사진의 이론과 촬영 같은 전문가의 오프라인 교육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으로 아이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수의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력해 온 오프라인으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아트, 수학 교육을 제공하는 STEAM 교육을 펼치고 있어요. 최저 복지 차원의 수업이 아닌 전문 자문단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최고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양질의 STEAM 교육 경험이 아이들의 융합적 사고와 함께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진로를 갖는 아이들은

* 아두이노 - 다양한 센서나 부품을 연결할 수 있고 입출력, 중앙처리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기판



5~10%이지만 해당 분야 교육 여부에 따라 아이가 겪는 차이는 크다. 아이들이 소외감으로 사회나 부모를 미워하게 되거나, 낙오자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을 수 있는 것. 호프키즈에서 제공하는 STEAM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다가올 시대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을 수 있게 된 셈이다.

ICT 플랫폼 덕분에 다문화가정의 부모들도 한 시름 덜었다. 이들은 주변에 정보와 자료가 있어도 이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정보 취합은 언어 능력뿐 아니라 문화적 배경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대부분 주위 외국인 부모 네트워크에서 한정된 정보만 얻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알림창을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꼭 알아둬야 할 정보와 자료를 공지로 알려요. 그 외 다양한 정보도 찾기 쉽게 만들어 다문화가정을 위한 종합 포털 사이트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주길

소외되는 우리 이웃의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기꺼이 작은 팍팍을 흘려온 사단법인 다문화교류네트워크.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 쌓아온 인고의 노력으로 얻은 소중한 성과가 이들에게 자긍심

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멘티로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멘토로 자신의 능력을 이웃과 나누고, 아이들이 고마움을 담아 편지를 보낼 때 참 뿌듯해요. 가족이 함께 멘토로 봉사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고 있고요. 사회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자긍심을 느껴요. 아이가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사회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INTERVIEW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가톨릭(태국) 씨네 지민혜, 지민희 자매와 아이들의 멘토인 박하나, 박하늘 쌍둥이 자매에게 묻은 찾아가는 공부방 이야기.

CASE 1 멘티 지민희(봉화초5) 멘토 박하늘(대일외고2)



“멘토 언니랑 공부하는 시간도 좋지만, 공부 끝난 뒤 함께 보드게임할 때 참 즐거워요. 또 영화를 보러 가거나 놀이공원에 갔던 것도 좋았어요.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가까이에 멘티가 살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뺏기거나 힘든 일이 없어요. 공부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교재를 받아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동안 수학을 가르치며 원리를 알려주고 문제를 푸는 걸 봐주었어요. 앞으로는 영어 공부도 하려고 해요. 함께 공부하며 공부에 대해 민희가 자신감이 많이 붙은 거 같아 좋아요.”

CASE 2 멘티 지민혜(원목중1) 멘토 박하나(서울외고2)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 멘토 언니와 함께 공부했어요. 덕분에 학원에 따로 다니지 않아도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죠. 혼자 시험 공부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멘토 언니한테 문자를 보내요. 언니가 시간 될 때 친절하게 답변해줘 도움이 돼요.”

“민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실한 아이예요. 그동안 초등학교 수업을 진행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민혜가 이번에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중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공부뿐 아니라 그런 일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SGI서울보증,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보증하다

지난 50년간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보증을 통해 서로 믿으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온 SGI서울보증. 2015년부터는 소외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과 사랑의열매 지정기탁사업 지원으로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SGI서울보증이 들려주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따뜻한 마음 나눔 이야기.

1960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취업할 때 특별한 조건이 필요했다. 취업자의 재산이나 신용을 보증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것. 1969년 2월에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SGI서울보증은 능력 있지만 보증 여건이 안 되는 이들을 위해 신용과 능력을 대신 책임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에 첫발을 디뎠다. 그 후로 성장을 거듭한 SGI서울보증은 기업 간 각종 계약이행을 보증해주는 이행보증부터 서민주거 안정을 돕는 전세금보증신용보험이나 전·월세 자금 대출보증, 취업에 필요한 신용보증보험 등 78개 상품과 500여 개 이상의 세부 보증 내용을 운용하며 서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고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토대를 탄탄하게 쌓아온 SGI서울보증은 2018년 310조 원을 보증하고 있는 국내 최대이자 세계 3위 종합 보증 회사로 우뚝 성장했다. 특히 세계 최고

의 신용평가 기관인 S&P사의 신용평가로부터 2017년 6월 A+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피치(Fitch)사는 6년 연속 AA- 등급을 부여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우량 금융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14년 베트남 하노이에 외국 손해보험사 최초로 지점을 설치했고, 이후 중국, 중동, 뉴욕 등에도 해외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



1 베트남 하노이의 한 초등학교를 찾는 SGI서울보증 임직원 봉사단
2 베트남 집짓기 봉사에 참여 중인 직원

며 글로벌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보증 서비스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SGI서울보증은 2015년부터 '미래 세대의 성장과 자립 지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SGI서울보증의 따뜻한 마음을 소개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치료비 지원

지방이 잘 분해되지 않는 지방대사장애로 대뇌병변 진단을 받은 김인수 군(가명). 외삼촌이 같은 병으로 상태가 급속히 나빠진 후 병원에서 권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그대로 두면 실명하거나 청력을 잃을 수 있는 상태까지 발전한 상황. 진행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골수이식뿐이었다.

"이식 전 항암과 이식 합병증 예방을 위해 각종 약물을 투입하는 '히크만 카테터'를 가슴에 삽입했어요. 이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모두 빠지고, 몸이 겹겹이 변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가 힘들었죠." 6학년 아들에게 닥친 시련에 김인수 군 어머니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인수 군은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낫는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항암 치료와 골수이식 수술을 받으며 회복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한 덕분에 예후가 좋아 다음 학기부터는 다시 학교에 갈 예정이다.

"치료비와 수술비가 많이 부담돼 지원받을 방법을 알아보다 SGI서울보증이 사랑의열매를 통해 진행하는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게 됐어요. 다행히 신청이 접수되어 수술비 350만 원을 지원받아 치료에 큰 도움이 됐어요. 요즘 인수는 외래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갈 때마다 예방주사를 맞아 면역성을 높이고 있어요. 학교에 가서 다시 건강하게 잘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국내 100만 명. 유병률이 2만 명 미만으로 드물기에 진단하기 어렵고, 치료법이나 의약품이 부족해 환자는 물론 부양 가족의 부담이 크다. 정부에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질환을 확대하고 있지만,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거나 개발되

지방대사 장애 (AD)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인수가 늘고 있다. 이 질환으로 대뇌병변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고 사전에 알게 되었고 대뇌병변의 뇌질환을 앓는 유일한 방법인 골수이식을 시행했었습니다. 이식전에 항암이라든지 이식후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약물이 투입되는데, 이를 용이하게 관리하며 가슴리듬 장애 때문에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히크만 카테터'를 통해 삽입하고 17년 9월 전남 서울대병원에서 이식받았습니다. 치비개시전엔 이식후 그해중으로 시작하여 항암으로 머리카락은 모두 빠지고 몸은 겹겹이 변해서 보게는 과정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두번째 시술은 이식후 5개월간 진행되었는데 머리는 많이 자라게 보였고 피부도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컷이선도 좋지만, 다만 아직 면역기능이 회복되지 않아서 투약하는 만약을 앞두고 대비하며 히크만 카테터를 이식 예정이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향상 검정검사를 통해 검정력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환자들은 이식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다른 부작용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우리 인수가 아직까지 멀고 안나고 재발원도 걱정입니다. 걱정하루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식후도 합병증에 대한 예방접종도 다시 접종해야 하는데, 그 기간에 (면접도) 소생되고 합니다. 예방접종까지 모두 미뤄진 것을 포함한 사내비수입 대신, 리빙비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너무 늦게는 시기에 뇌병변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히크만 카테터에 골수이식비용을 지원해주신 과목수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길은 짧지만 끝까지 같이 걸어가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만이라도 이런 일을 잘 부탁드립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수혜자의 감사 편지

었다고 해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현실이다. 그 때문에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나 그 가정은 의료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김인수 군과 같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우들이 제때 치료를 받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초등학생부터 만 30세 이하 대학생 환우 11명에게 총 3,500만 원을 지원해 소중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학원 수강비 지원 학습 의욕 높은 보호시설 청소년 위한 교육비 지원

(재)마리아수녀회가 운영하는 파란꿈터와 초록꿈터는 만 18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이다. 아기 때 베이비 박스를 통해 보호시설에 들어오거나 무연고인 아이가 95% 이상이다. 부모의 뒷바라지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해야 하므로 이들에게 중·고등학교 시절의 공부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꿈터 아이들은 학습 의욕이 높고 성적이 우수해도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반대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기초 학력과 학습 성취도가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는 아이들도 있다.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사랑의열매 지정기탁사업으로 파란꿈터와

초록꿈터 아이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2,000만 원을 지원했다. 거주 청소년의 내신과 학업 성취도 향상, 인지 개발을 위한 '공생공사'와 '열공파란'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의욕이 높은 아이 22명의 외부 학원 수업을 위한 학원비를 지원한 것. 아이들은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등 단과 과목 수강이나 종합반 수강으로 학업에 큰 도움을 받았다. 특히 고3 학생 중 지원받은 아이들은 이화여자대학교, 선문대학교, 여주대학교 등에 입학해 미래를 위한 토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전국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도움의 손길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한옥은 어떻게 다를까요?”

퀴즈에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졌다. 민속촌에 발을 디딜 때만 해도 낯선 한옥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이 한옥에 제법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자신만만하게 지역에 따라 다른 전통 가옥의 모양과 지붕의 정답을 내놓았다. 지난 6월 다솜지역아동센터 아이들 20명이 특별한 민속촌 나들이를 했다. 민속촌에서 전통 가옥을 알아보고, 전통 공연인 줄타기와 전통 혼



1 홀몸노인을 위한 물품후원을 전하는 봉사자들 2 사랑의열매 지정기탁사업으로 진행된 삼겹살 급식 3 민속촌에서 전통 염색 체험을 즐긴 다솜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례를 통해 조상의 삶도 엿본 시간. 또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아찔함, 천을 예쁘게 물들일 때는 뿌듯함을 경험했다. 반나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역 여건과 어려운 가정경제로 문화 체험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의 인식의 폭을 넓히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지난가을에는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결실 예방을 위한 삼겹살 급식이 서울 보라매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진행됐다. 전국자원봉사연맹이 건강과 영양을 챙기기 쉽지 않은 70세 이상 홀몸노인 500명을 위해 마련한 특별 메뉴. 이날 급식 행사는 노인들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는 큰 선물이 되었다. SGI서울보증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국의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42곳의 45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봉사로 나눔의 손길을 더하고 있다.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후원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다

2015년 5,000시간, 2016년 6,500시간, 2017년 1만 시간 그리고 지난해 1만 1,000시간. 매해 SGI서울보증 임직원들이 실시한 봉사 활동 시간이다. 그 따뜻한 마음이 늘어갈수록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심장병 어린이의 생명도 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2015년부터 매년 임직원들의 봉사 활동을 시간당 1만 원으로 매칭해 한국심장재단을 통해 선천적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1억 1,000만 원의 후원금이 수술비 등 아이들을 위한 지원비로 전달됐다.

희망의 집짓기

국내외 소외 아동을 위한 안전한 집 만들기

무더운 날씨에 헬멧 아래로 흘러내리는 땀방울. 기초공사로 바닥을 고르고,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등 익숙지 않은 작업에 때로는 진땀까지 흘렸다. 하지만 참가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연신 웃음꽃이 가득했다. 땀 흘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소중한 아이들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품어줄 보금자리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은 집이 없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외계층 아동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여름마다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희

망의 집짓기'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16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총 928시간과 1억 5,000만 원을 들여 천안 지역에 주택을 새로 지었고, 대전과 부산, 순천 등지에서 집을 수리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

지난해 4월에는 SGI서울보증 임직원 41명이 베트남 하노이 인근 타이응우엔성 타이뚜현 코이키 교묘를 5박 7일 일정으로 방문해 주택 및 초등학교 화장실 신축 봉사 활동을 펼쳤다. 세계로 도약하는 국내 최대 종합 보증 회사인 SGI서울보증이 진행하는 글로벌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이다. 1억 1,000만 원의 기부와 건축 봉사 참여를 통해 주택 네 채는 신축, 두 채는 개·보수하고, 네 곳의 위생 시설을 마련했다. 한결 쾌적해진 마을을 통해 돕는 이들도, 도움을 받는 이들도 다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경제 활성화와 신용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SGI서울보증. 든든한 신용 파트너에서 사회와 이웃의 마음까지 보듬는 따뜻한 마음 나눔 파트너로도 성장하고 있다. ♡



4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수술비 전달 현장 5 희망의 집짓기 후원금 1억 5,000만 원 전달하는 모습 6 집짓기 현장에서 만난 SGI서울보증 봉사자들

남성 듀오 BOK 멤버 리누

나의 노래로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남성 듀오 BOK(소속사 락인코리아)의 리누(LeeNu)가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의 일원이 되었다. 리누는 아프리카TV 음악 경연대회인 <아프리카TV 뮤지션을 소개합니다>(이하 <아·뮤·소>)에서 1등을 차지해 받은 상금 1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리누는 음악 경연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하며 노래 실력과 이웃 사랑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게 되었다. 나눔리더 가입식에서 “평소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면서 팬들의 지속적인 사랑에 감사했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나눔을 통해 팬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아·뮤·소>는 음악 BJ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음악 BJ의 무대를 한 자리에 모아 볼 수 있는 콘서트 형식의 아프리카TV 방송이다. 특히 리누가 출연한 15회 방송은 경연 상금 외에도 방송 중에 <아·뮤·소> 공식 계정으로 누적된 별풍선 115만 원을 함께 기부해 나눔의 뜻을 이어갔다.

노래로 만드는 기적

‘기분 좋은 날’, ‘떠나지 마’ 등의 대표곡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받은 남성 듀오 BOK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 3> 운상 편 우승자인 리누와 <슈퍼스타K> 출신 선리가 뭉친 실력파 그룹이다. ‘다 잘될 거야’라는 뜻의 ‘It’s be a Okay’에서 따온 BOK는 ‘복(福)’으로도 불러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BOK는 이름대로 데뷔 첫해부터 ‘한중문화 스타 어워즈 라이징 스타상’, ‘국제 K-스타 어워즈 케이팝 가수 부문 인기상’ 등을 수상하며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대만, 일본 등지에서도 활동을 이어가며 케이팝 한류 스타로도 발돋움하고 있다. 리누는 솔로로도 활발히 활동하는데, 특히 SNS와 개인 방송을 통해 팬들과 쌍방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페이스북의 ‘노래 잘하는 법’ 페이지에는 3만 명의 팬이 있고, 유튜브에도 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매일 밤 10시에 방송하는 아프리카TV에서도 7년째 활동 중이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노래가 있다. 리누는 아이돌 그룹의 보컬 트레이너이자 김범수, 이승기, 바이브 등 최정상 가수들의 가이드 녹음

가수로도 활동해 업계에서도 인정받은 실력자다. 이런 탄탄한 실력과 마음을 담은 노래 덕에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것이다.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것도 노래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유튜브 ‘신청곡여기요’ 채널에서 댓글로 신청곡을 받아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슬픈 발라드를 부른 날은 노래에 몰입한 팬들이 너무 슬프다는데, 다 듣고 나면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라고 해주세요. 저는 노래의 힘이 거기에 있다고 믿어요. 제가 노래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리누는 하늘의 별에 비유되는 스타보다 노래 잘하는 동네 오빠처럼 편안한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야말로 인간미 넘치는 보기 드문 가수다. 아는 오빠처럼 팬들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러주기 위해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는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

“가사는 못 외워도 팬들 이름은 외우겠다고 다짐했죠. 제 머리가 다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기부의 일상화로 팬 사랑에 보답

리누의 기부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팬들의 사랑으로 시작된 나눔리더인 셈이다. “팬들의 선물이 정말 다양해요. 옷 가게 하는 팬들은 옷을 선물해주시고, 어떤 분은 직접 만든 디저트를 보내주기도 하죠. 그런 큰 사랑



을 받으면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리누는 가장 자신 있는 재능인 노래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콘서트나 피쳐링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지만, 노래가 꿈인 사람들에게 보컬을 가르쳐주는 일을 15년째 이어오고 있다. 노래를 하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벤트 형식으로 보컬 티칭부터 레코딩, 영상 촬영까지 해볼 수 있는 체험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막연히 가지고 있던 꿈을 직접 체험하는 것도 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청소년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이 저마다 간직한 꿈과



애달픈 사연으로 리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가수이기 이전에 저도 생활인이잖아요. 일부러 돈을 모아야 하는 기부는 힘들지만, 제가 가진 재능과 일상의 시간을 조금 나누는 건 큰 부담이 없죠. 그 작은 수고로 누군가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니 이 일에 애착이 가더군요.” 금전 외에도 재능을 공유하거나 시간과 노동력을 나누는 봉사 활동도 송고한 기부다. 리누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눔을 이어가는 실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대적 관점에서의 기부는 절대 빈곤의 차원을 넘어 마음의 문제이자 문화적 이슈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부의 트렌드도 맹목적 기부에서 참여형 기부로, 금전 기부에서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기부 방법을 알리고 나눔의 미덕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전에는 기교가 많은, 아무도 부르지 못하는 노래를 부르는 데 자부심을 느꼈지만, 지금은 듣기 편한 노래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하면서 성숙해지는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BOK 리누의 기부는 그의 노래처럼 앞으로도 부담 없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도 좀 더 다양해지기를 바란다. 🍀

7년 만에 찾아온 행복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지난해 11월 29일 충북 사랑의열매에 착한가정 100호가 탄생했다. 결혼 7년 만에 아들 재운이를 품에 안은 김광섭·이주호 씨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또한 착한가정 가입과 동시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부부. 그렇기에 꼭 나눔에 동참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충북 착한가정 100호
재운이네 가족

천사를 만난 후 달라진 세상

2018년 2월 김광섭·이주호 씨 부부는 드디어 아빠, 엄마가 되었다. 결혼한 지 꼭 7년 만이다. 부부 모두 유치원 교사로 유독 아이를 예뻐했지만 자신들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천사는 선물처럼 그들을 찾아왔다. 재운이는 부부에게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었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재운이가 태어난 후 그동안 유치원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한 명 한 명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만큼 키우셨는지 알게 되었죠. 지금은 대학 강단에 서는데 부모가 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부분도 달라지더라고요.” (김광섭 씨)

남편 김광섭 씨는 재운이가 100일 될 무렵 아내에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아이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려운 형편으로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해 속을 끓이는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자신에게도 아픔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말을 듣기 전 우연히 라디오에서 타이거JK·윤미래 부부가 어려운 상황에도 자기들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돕고 싶다는 전 재산 기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기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다니 고맙기도 하고 멋져 보였어요.” (이주호 씨)

세 식구가 함께한 ‘첫’ 나눔

친척과 주변 지인들이 건넨 축하금과 기타 비용을 줄여 모은 100만원으로 부부는 재운이와 함께 셋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결심했다. 문제는 기부금을 기탁할 곳을 선정하는 일이었다. 수많은 자선기관 중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우연찮게 방송인 박수홍 씨가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걸 봤어요. 그동안 진행해 온 캠페인을 보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신뢰가 있었거든요. 바로 충북 사랑의열매에 전화해 기부하고 싶다고 했죠.” (김광섭 씨)

충북 사랑의열매와 통화 중 부부는 매달 정기기부를 할 수 있는 착한가정을 알게 되었고, 가입을 결정했다. 적은 돈이라고 해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고정 지출이 있다는 건 은근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어 먼저 물어보았다. 아내 이주호 씨는 “처리가 아이를 늦게 낳은 편이라 주변에서 장난감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덕분에 절약한 장난감 비용을 기부하는 셈이죠”라며 명쾌하게 답했다. 또 기존에 기탁하려고 했던 100만 원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착한가정 가입과 별개로 그 돈은 좋은 일에 쓰려고 했던 것이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착한가정 가입식에 저희 세 식구가 함께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느낌이 따뜻하고,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알았죠. 나눔 덕분에 마음만큼은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이주호 씨)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김광섭 씨는 중학생 때 어르신 목욕 봉사를 한 후 봉사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유치원 교사가 된 후 아동센터에서 동화구연 봉사를 하면서 비로소 인식이 바뀌었다. 내가 가진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봉사임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 라이온스 회원으로 활동하고, 10년째 아동을 후원하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저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착한가정 가입 후 주변 지인들이 가입 방법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는 기부 방법이 다양해져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 왼손에게도 알려야죠. 이렇게 알리다 보면 언젠가 퍼지고 퍼져 나눔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을까요.” (김광섭 씨)

부부는 재운이가 네댓 살이 되면 나눔을 이야기해줄 생각이다. 착한가정 가입 사진 등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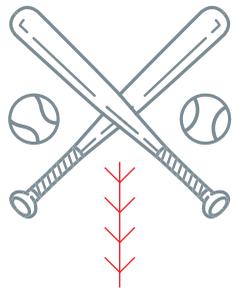


여주며 함께 나누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재운이가 나눔과 봉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처럼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 아이의 일상에 사랑과 나눔이 스며들었으면 해요.” (이주호 씨)

또한 김광섭 씨는 제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는 소중하다’는 주제로 나눔 연극을 기획해 직접 무대에도 서는 새로운 나눔 활동을 생각 중이다. 언젠가는 대학생이 된 아들 재운이와 함께 연극도 하고 나눔도 하는 상상을 하면 벌써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일 터. 김광섭·이주호 씨 부부는 내 아이뿐 아니라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모든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넉넉한 부모의 품을 지니고 있었다. 🍀





매점 컵라면도 사치였던 내가, 모교 장학금을 줬던 날

롯데자이언츠 손아섭 선수
2018 사랑의골든글러브상 수상자

지난해, 나는 야구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 중 하나인 '사랑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성적을 내 받는 상은 내가 흘린 땀의 보상 같다면, 나눔을 통해 받는 상은 세상이 내 마음에 보내는 응원 같다. 사람 마음이란 게 응원을 받으면 없던 힘도 생기곤 하니까. 사랑의 골든글러브 수상 후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기사를 본 주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물어왔다. 그중 가장 많은 질문은 운동하기도 바쁘고 힘들 텐데 왜 나눔 활동을 하는지 그 이유였다.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가, 내 자신도 다시 한번 되 돌아보게 되는 물음이었다. 나는 편하게 여유 있게 야구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다. 사실 어렵게 야구를 했다고 하는 편이 맞다. 어려웠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데, 한창 운동하던 중학생 시절에는 매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먹어도 먹어도 늘 배고프던 시절, 학교 매점에서 컵라면 하나 편하게 사 먹지 못하는 게 내 처지였다. 그래서 아예 매점 근처에는 기웃거리지도 않았다. 지금까지도 내가 학교 매점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이유다.

야구라는 꿈을 지탱해준 많은 도움들

형편이 어려웠다고 해도 야구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배가 고프면 고픈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운동을 했다. 하지만 위기는 늘 찾아왔고, 그때마다 나는 크고 작은 주변의 도움을 받았다. 중·고등학생 시절 동문들에게 장학금을 받았고, 가까이서 야구를 지도해주시던 코치님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야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야구를 계속하지 못했을 것 같다. 그 시절이었던 것 같다. 나도 유명한 야구선수가 돼 좋은 대우를 받는다면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운동하는 후배들을 도와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말이다. 자연스러웠다. 계기를 묻지만, 어느 날 어떤 일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내가 야구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 날 응원해주었다. 내가 야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따뜻한 고마운 마음들의 온기는 여전히 내가 쥔 야구방망이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래서



나의 첫 나눔도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당시는 연봉이 높던 시절이 아니어서 많은 액수를 쾌척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릴 적 품은 꿈 하나를 또 이루었다는 마음에 꽤나 설렘었다.

기적으로 돌아온 작은 도전

작다고 여긴 나의 나눔은 늘 '큰 도움'이 되었다는 기적으로 되 돌아온다. 분명 나는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언제나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인사를 받는다. 그때마다 흥분만이 기적이 아님을 절감한다. 그리고 그 흥분 같은 기적은 흥분만큼이나 짜릿한 기쁨을 선사한다. 나눔의 행복감을 느끼면 나눔은 한결 편안해지고 쉬워진다. 도움을 받는 감동보다 더 큰 것이 나눔의 행복이다. 용기를 내 그 작은 시작에 도전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나 또한 거액의 연봉 계약을 하기 전부터 용기 내 작은 나눔의 도전을 했다. 그리고 큰 기적의 기쁨을 맛본다. 그 시작이 없었다면 사랑의 골든글러브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렵게 운동하던 어린 시절의 나와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특별한 좌우명이 없는 나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간절함'이란 말을 좋아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메모를 해둔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사람의 일이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꿈을 향해 강하게 간절하게 나아가길 바란다. 어딘가에서 기적이라는 흥분이 힘차게 날아오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



지난해 1월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는 이들에게 수여하는 '사랑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손아섭 선수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해법 ‘비영리스타트업’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스타트업’과 ‘비영리’가 만났다. 비영리스타트업은 미국과 유럽에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창업 형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둘 도전하고 있다.

사회공헌도 높은 창의적 조직

스타트업(Start-up)은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는 신생 벤처기업을 의미한다. 대규모 자금을 조달받기 전이지만,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어 급격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 정의 내린다. 비영리스타트업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비영리와 스타트업의 합성어다.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이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은 스타트업의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한 것이다. 비영리스타트업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스타트업처럼 차별화된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기존 사회문제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등 기술로 접근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이용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비영리적 가치를 두는 만큼 사회 공헌을 목표로 하며 이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회 공헌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일반 스타트업과 구별되는 점이다. 즉 비영리스타트업이란 사회 공헌도가 높고, 청년층이 설립한 비영리사업체로 사람 중심 경제로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사회경제 틀에서 생겨나는 신생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미국·유럽에선 활발, 국내는 아직 태동 단계

똑같이 비영리를 추구하지만 비영리단체와도 차이가 있다. 기존의 전통적 비영리 분야가 종교, 자선, 봉사 등이라면 비영리스타트업은 공유경제, 출판, 도시 재생, 교육, 문화, 반려동물, 예술 등 주제와 방식이 다양하다. 비영리스타트업은 기부와 자원봉사, 민관 후원, 타 사회단체와 연계해 다각화되고 유연하게 운영되며 기부금, 현물출자뿐

아니라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사업을 적극 수용하고, 재능 기부를 통한 사회적 멘토링을 이용하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친다. 또한 비영리스타트업의 수익 모델 발굴 등을 통해 비영리와 영리의 장점은 접목하고 단점은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조직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우리나라는 이제 막 관심을 보이는 단계다. 국내에도 비영리스타트업이 운영 중이며, 그중 2013년에 문을 연 ‘열린옷장’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기증받은 정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초기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대상이었으나 최근엔 정장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옷을 빌릴 수 있다. 온라인 프로그램 ‘수트지니어들’을 개발해 수익에 중점을 둔 사업을 기획하고, 수익의 일부는 청년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노숙인 자활에 필요한 의류 기부, 시각장애인 스타일링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공헌에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과 이주 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청년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는 ‘JUMP’, 결혼식에 사용한 꽃을 소외계층에 기부해 기쁨과 위로를 전달하는 ‘플리’ 등을 운영 중이다.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도 비영리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산나눔재단의 ‘파트너십온’ 프로그램은 청소년 관련 비영리기관 중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혁신 의지가 높은 곳을 발탁



한다. 다년간 재정 지원으로 비영리스타트업의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법률 컨설팅, 마케팅, 전략 등 비재정적 지원을 위해 기관별 조직역량 진단을 진행한다. 서울시NPO지원센터의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은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선정된 곳은 오피스아워를 통해 운영에 대한 밀착 코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 전문 멘토링 연계, 오픈형 사무 공간을 제공한다. 다음세대재단과 언더독스(주)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어웨이크(AWWWAKE)’는 청년들이 가진 의미 있는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을 높여준다. 3박 4일 입문교육과 정기교육 등 체계적인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공유 사무실과 프로젝트 지원금 최대 2,500만원, 전담 코치, 전문가네트워킹 기회를 준다. 양태용 카이스트 기업정신연구센터장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성공률은 1%에 불과하다.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발표 자료는 아

직 없지만, 스타트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조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긍정적 측면에서 보자면 취약계층을 위해 비영리 관점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 역시 계속 출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계별 지원 기관과 방법이 구축된다면 지원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해 단계별 성장이 가능하다. 다만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비영리스타트업의 명망이 엇갈릴 듯하다. 이에 전문가는 비영리의 새로운 토대와 문화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할 것을 조언한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사회 공헌에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영리스타트업은 매력적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비영리스타트업이 걸음마를 떼고 안정적으로 달리는 그날이 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비영리스타트업에 기대를 걸어보는 이유다. 🍀

겨울을 아직 벗지 못한 당신에게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 마쓰이에 마사시

우리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삶이 행복과 웃음으로 짜인 피륙이면 좋으련만 나날은 뜻없이 흘러가고
심심할 따름입니다. 여행을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타인에게 인색하거나 관대하거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지요.
양쪽 다 삶의 무미함에서 벗어나기란 어렵습니다.

가슴속 반짝거리는 별이 사라질 때

우리는 꾸역꾸역 음식을 삼키고, 직장에 출근해 업무를 처리하며, 퇴근하고 돌아오면 TV를 켜고 드라마를 봅니다. 머리맡에 선물을 두고 가는 산타 할아버지가 실은 허구라는 걸 알게 된 이후 삶의 괴로움은 우리 뒀만으로도 넘치지만 기쁨은 늘 모자라서 어딘가에서 빌려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은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해서 벽에 머리를 쿵쿵 박기도 했겠지요. 간혹 엘라 힐러 윌콕스의 '고독'이라는 시의 첫 구절에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으리라.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되리라.

누구나 인생의 황금기가 있겠지요. 한때 나도 행운이 겹치며 흥청망

청 잘나가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 시절 주변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만, 인생이 난조에 빠지자 사람들은 사라지고 나 혼자만 남더군요. 그게 세상인심이라는 걸 알고 씩씩했지요. 그 뒤로 긴 겨울을 지날 때 자주 계절성 우울증에 빠지곤 합니다. 딱히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매사에 의욕을 잃었지요. 벗과 수다를 떠는 것도, 맛있는 음식을 일부러 찾아 먹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다 심드렁했습니다. 감정이 현무암처럼 딱딱하게 굳은 채 몸을 한껏 웅크렸던 날들. 어쩌면 일조량이 줄어 호르몬에 나쁜 영향을 끼쳤는지도 모르지요. 행복의 능동성에 빠져들 수 없다면 불행의 속도를 저감하며 그것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반짝이던 별들이 사라지고, 잿빛 세상의 경미한 노진탕같이 덮치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나는 몰입할

만한 소설을 찾아 읽어요. 소설은 사람 사는 이야기인데, 그 속에 누군가의 희로애락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소설을 읽으며 내 안의 욕망과 감정을 꺼내 비춰보고, 더러는 위안을 받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괴로움이나 불행의 참담함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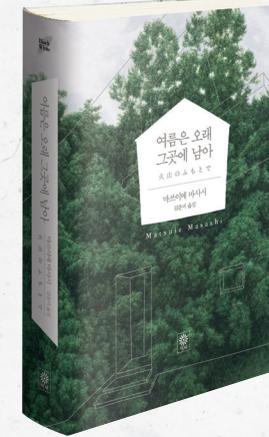
마쓰이에 마사시의 장편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비체)를 고른 것은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이 생동감 넘치는 소설을 읽는 내내 새 홀쭉 이불을 처음 펼쳐 몸에 덮을 때만큼이나 기분이 좋았으니까요. 소설 읽기의 매혹에 빠져 있던 청소년 시절의 느낌이 선명하

게 살아났어요. 나는 인생의 달콤함과 씩씩함을 동시에 지닌 이야기에 몰입했습니다. 마쓰이에 마사시는 1958년생으로 도쿄 태생인 작가입니다. 와세다 대학교 문학부를 나와 서른 해 동안 편집자로 일하면서 어느 날 서점에서 신간 소설을 읽다가 '나라면 이보다는 더 잘 쓸 것 같다고 용기를 얻어 소설 쓰기를 시작했대네요. 2012년 이 작품을 『신초』에 내놓으며 54세라는 늦깎이 작가로 문단에 나왔습니다.

잔물결같이 번지는 소소한 기쁨의 기록

때는 1982년, 건축학과를 막 졸업한 한 젊은이가 가장 건축가 무라이 슌스케(실존 건축가 요시무라 준조(吉村順三)가 모델이라고 한다)의 설계 사무소에 들어갑니다. '나'와 설계 사무소 직원들은 도쿄 도심을 떠나 가루이자와의 여름 별장에서 숙식을 하며 국립도서관 프로젝트 설계 도면의 공동 작업에 열중합니다. 오피셀 나이프로 사각사각 연필을 깎으며 시작하는 설계 사무소의 하루 일과와 여름 별장을 둘러싼 계절의 변화, 그리고 이웃의 이야기가 청신한 감각으로 펼쳐집니다. 설계 사무소 사람들이 도면을 그릴 때 쓰는 연필이 닳으면 매실주를 담그는 큰 유리병에 넣습니다. 여름 별장 난로 곁 선반에는 몽당연필로 가득 찬 유리병 일곱 개가 있습니다.

고도 경제 성장기로 접어든 1980년대, 표고 1,000m가 넘는 지방의 여름 별장을 배경으로 신참 직원인 '나'와 선생님 조카딸과의 연애담이 곁들여집니다. 교양인의 예의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과 고귀한 심미적 취향을 가진 작중 인물들. 건축, 미술, 요리 등에 대한 전문 식견과 자연을 향해 활짝 열린 몸의 견실한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펼쳐지는 서사에 감탄했습니다. 노(老)건축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국립도서관 설계 공모는 경쟁 관계에 있던 설계 사무소에 빼앗겼습니다. 여름 별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저마다의 운명



을 살아냅니다. 세월은 스물아홉 해나 흐르며 여름 별장의 주인도 바뀌지요. '나'는 여름 별장을 인수하고 29년 전의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진입로의 계수나무는 놀랄 만큼 커 있었다. 기억 속의 계수나무보다 훨씬 더 굵고, 높이도 별장의 처마 높이를 훨씬 넘어버렸다. 바뀌지 않은 것은 잎사귀의 모습뿐이었다. 선생님이 쓰러진 날처럼 모든 잎사귀가 위부터 아래까지 남김없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계수나무의 그리운 달콤한 냄새. 나는 잡초와 낙엽으로 뒤덮인 진입로를 걸어가 시기하라 마리오한테 받은 열

쇠를 주머니에서 꺼내 현관문을 열었다.

-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중

마지막 장을 덮고 나니, 저 '그리운 달콤한 냄새' 코끝으로 훅 밀려듭니다. 아름다운 것들과 더불어 덧없이 흘러가 흔적이 없는 세월의 냄새지요. 한 권의 소설을 다 읽고 난 뒤금빛으로 반짝이는 기쁨 위로 한줄기 푸른 슬픔의 빛이 비쳐옵니다. 치정이나 살인 사건은 없습니다. 숲속의 청신한 공기와 정경, 명량한 새들의 지저귀, 한적한 지방 국도를 달리는 차 안에 퍼지는 슈베르트 소나타, 연필 깎는 소리, 오후 티타임의 정적에 번지는 향내... 이런 일상에 대한 묘사로도 충분합니다. "커피를 끓이는 향내처럼, 연필을 깎는 냄새에 아직 어딘가 멍한 머리 심지가 천천히 눈을 뜬다. 사각사각하는 소리에 귀의 신경도 전원이 켜진다." 이렇듯 잔물결같이 번지는 소소한 기쁨의 세목이 곧 행복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렇지요. 행복은 거창한 업적을 쌓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날의 조출한 안녕과 고요함 속에서 더 실감하는 법이지요. 한 청년의 성장기이자 연애담이고, 세월 저편으로 사라진 아름다운 것들을 기리는 이 소설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우울감도 이 소설을 읽으며 말끔하게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



작가 장석주는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동경해왔으며, 스무 살 때 시인으로 등단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시와 문학평론을 함께 작업하고 있다. 때로는 대학교수, 방송 진행자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했으나 지금은 전업 작가로 살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쓴 결과, 엮은 책이 100여 권에 달할 정도로 왕성한 글쓰기를 하는 문장노동자다.



배추적, 멍멍하고 습습한 그 맛... 아버지의 응원

책이 도착했다. 김서령 작가의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었다>. 표지에 마음을 빼앗겼다. 순전히 '배추적' 때문이다. 배추적은 배춧잎을 데치거나 소금을 쳐 흐물흐물해지면 밀가루 등을 묻혀 지져내는 음식이다. 배춧잎 따위가 뭐라고, 딱하니 그 단어를 제목에 넣었을까. 작가 스스로 '허드레 음식'이라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크고 넉넉한 품 '경상도 배추적'

김장철이면 길바닥에 나뒹굴며 밟히고 또 밟히는, 보잘것없는 게 배춧잎이다. 심지어 걸쭉질에 싸여 다소곳이 안쪽에 붙어 있는 연한 배춧잎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시린 바람 이겨내고 버티느라 거칠 대로 거칠어진 겉잎으로 만든다. 배추적은 가난이 덕지덕지 묻은 음식인 셈이다. 하지만 여섯 살이었던 당시 작가의 눈엔 '속이 썩은 사람들끼리 둘러앉아 먹' 배추적은 깎아내리고 무시할 만한 먹거리가 아니었다. 사람의 혀를 쉽게 지배하는 간사하고 열은 맛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남편의 부재로 속이 썩었지만, 그래서 사무치는 아픔을 가졌지만, 또 그래서 의연해진 여자들이 모여 먹는 배추적은 예사로운 음식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위대했다. 다행인 걸까. 불행인 걸까. 난 그들과 좀 달랐다. 내게 배추적은 아버지의 크고 넉넉한 품이었다. 비가 주룩 주룩 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으레 "출출하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머니의 손이 빨라졌다. 주방엔 밀가루가 날리고, 고소한 향이 퍼졌다. 어머니는 어린 내 얼굴만 한 배춧잎에 소금을 살짝 뿌리셨다. 그 미묘한 양

이 맛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뻣뻣하고 자만심 가득하던 배춧잎은 살포시 고개를 숙였다. 배춧잎 특유의 질긴 식감은 소금을 만나 눈 녹듯 없어졌다. 하지만 밀가루를 운 좋게 만난 후엔 다시 살아났다. 배춧잎은 곧 1980년 8월 대한해협을 건넌 조오런처럼 부침가루 반죽 물에서 헤엄쳤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밥상엔 도톰한 배추적 여러 장이 나타났다. 먹기 좋은 크기는 아니었지만, 배추 겉이 살아 있는 길쭉한 모양새는 먹기도 전에 군침이 돌았다. 참새 새끼 같았던 철없는 딸들은 속없이 달려들었다. 젓가락 네 벌이 영토 전쟁을 벌이듯 다투면 아버지는 "천천히 먹어라" 하셨다.

배추적은 별맛이 없었다.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사탕 같은 맛은 아니라는 소리다. 아이의 맛이 아니라 어른의 맛이였다. 하지만 젓가락은 쉴 틈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 틈에서 천천히 몇 점씩 드셨다. 그리고 조용히 빗소리를 들으셨다. 빗소리와 아버지의 배추적 씹는 소리는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잘 어울렸다. 자장가처럼 정겨운 소리였다. 우리는 아버지가 먹는 배추적이 좋았다.

아버지의 고향은 경상도다. 배추적의 고향도 경상도다. 강원도 사람들도 배추적을 먹긴 했지만, 배추적의 미덕인 습습한 맛은 경상도가 제대로다. 비옥했던 전라도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음식이다. 김서령 작가의 어머니는 배추적의 진짜 맛은 양념간장에 있다고 했다. 멍멍하고 습습한 맛이 술 푸드로 등극하려면 짠맛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배추적을 간장에 찍어 드시지 않았다. 궁극의 맛은 '무미(無味)'라고 생각하신 걸까.

여섯 식구가 머리를 맞대고 후루룩

아버지가 좋아하신 음식은 배추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칼국수도 아버지의 술 푸드였다. 경상도식 칼국수에는 콩가루가 들어가지만, 어머니의 조리법엔 콩가루가 없었다.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다. 대청마루에 밀가루가 풀풀 날아다니면 마치 국수 공장 같았던 풍경을 잊지 못한다. 배춧잎이 없을 때 어머니는 반짝이는 도시의 찬장에서 국수틀을 꺼내셨다. 똑딱똑딱 금세 밀가루 반죽 덩이를 만드셨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건네셨다. 어머니는 할 일이 따로 있었다. 면과 함께 칼국수의 다른 축인 육수를 잘 내기 위해 멸치를 고르고 다시마를 잘랐다. 보글보글 육수가 끓는 동안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틀에 밀가루 반죽 덩이를 넣고 딱딱한 바를 돌려 면을 뽑았다. 무에 옷겼는지 우리는 허리가 굽어지고 턱이 빠질 정도로 깔깔대며 웃었다. 국수 뽑는 일은 놀이였다. 아버지의 흐뭇한 미소는 더 빨리 더 많은 면을 뽑게 했다. 대청마루 창밖에서 게으르고 나른한 햇살이 염탐하듯 국수틀을 찾아오면 우리는 놀이동산에 놀러 온 것처럼 양팔을 더 활짝 펼쳐 면을 뽑았다. 이윽고 뜨끈한 칼국수가 완성되면 여섯 식구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먹었다. 후루룩, 찹

찹... 아버지가 내는 소리는 피아노 건반에서 나오는 노래 같았다.

이제, 그 소리를 더는 들을 수 없다. 돌아가신 지 6년. 지금도 병상에서 "물자는 아껴야 해" 하시면서 티슈 한 장을 반으로 잘라 쓰시던 모습이 선하다. 병상에 계시는 동안 칼국수 한 그릇, 배추적 한 점 못 드린 게 사무치게 아프다.

삶은 녹록지 않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온다. 정도는 달라도 예외는 없다. 하지만 가던 길을 멈출 수는 없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배추적을 부친다. 아버지의 맛을 찾는다. 그의 삶의 방식을 떠올린다. 그러면 힘이 난다.

김서령 작가는 "산다는 건 결국 속이 썩는 것이고, 얼마간 세상을 살고 난 후엔 절로 속이 썩어 내성이 생기면서 의젓해지는 법"이라고 했다. 나는 배추적 한 점과 국수 한 젓가락을 먹을 때 내성이 생기고 의젓해진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 먹는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에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다. ♡



박미향 기자는 한겨레신문 ESC 팀장 겸 음식문화기자로 다양한 맛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사진도 찍는 음식기자로 유명하며 <그곳에 가면 취하고 싶다>, <박미향 기자 행복한 맛집을 인터뷰하다> 등 음식 관련 저서를 여러 권 출간했다. 음식의 무궁무진한 세계에 푹 빠져 살고 있는 유쾌한 '맛' 기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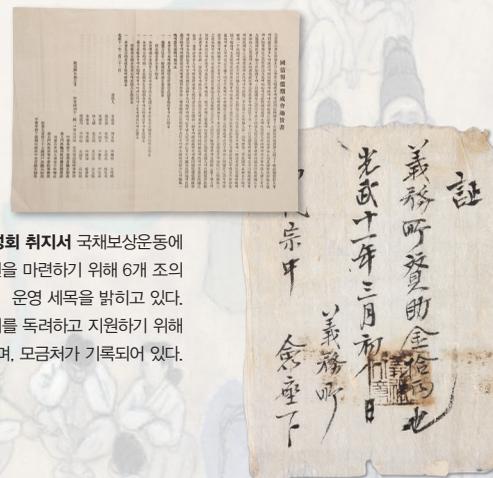
**국채보상운동
112주년의 발자취**

“**국가망하는 것이니 국민이 열심히 하옵시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선조들의 항일투쟁을 되새길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일본의 경제주권 침탈에 대응해 국채 1,300만 원을 갚기 위해 신분과 연령,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전국민이 참여한 경제주권 회복운동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문화운동이다. 들불처럼 번진 국채보상운동은 끝내 좌절되었지만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지키려는 3·1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국채보상운동 정신은 광복 이후에도 면면히 이어져 1997년 IMF 금융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으로 승화되었다. 국가 위기를 국민의 노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국채보상운동 90년 뒤에도 똑같은 형태로 발현된 것이다.

전국민이 나선 기적의 모금 운동

일제의 대한제국 침탈 과정은 치밀했다.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조선은 자립할 능력이 없으므로 일본이 보호해야 한다”며 을사늑약을 체결한 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속국으로 만들었다. 우리 국권을 완전히 강탈하기 위해 일제는 집요하고 끈끈히 움직였다. 그 가운데 핵심이 경제주권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일본 통감부는 ‘차관 강요’와 ‘담배장사’라는 두 가지 수법을 썼다. 차관 강요는 관이 하고, 담배판매권은 민간에 독점으로 맡긴 것이다.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1,300만 원의 국채를 만들었는데, 당시 1907년 대한제국의 연간 재정 수입은 총 1,319만 원이었고, 지출액이 1,395만 원이었다는 점을 미뤄볼 때 국채 탕감은 애초에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의 거상 서상돈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는데, 서상돈은 2,000만 국민이 3개월간 담배를 끊어 모은 돈으로 1,300만 원 나랏빚을 청산할 것



국채보상기성회 취지서 국채보상운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6개 조의 운영 세목을 밝히고 있다. 전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직했으며, 모금처가 기록되어 있다.

국채보상 영수증 인씨 종중에 국채보상운동 천조금으로 열 냇을 의무소에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을 주장했다. 담배를 끊어 모은 돈으로 국채를 갚자는 국권회복운동이었다. 1907년 2월 서상돈과 김광제는 공동 명의로 ‘국채보상기성회의 창립 취지문’을 발표하며 모금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우리 정부가 들어온 빛이 거금 1,300만 원이라. (중략) 우리 2,000만 동포가 1원씩 낸다면 2,000만 원이요, 50전씩 낸다면 1,000만 원이니 백성들이 나랏빚을 갚는 일이 어찌 불가능 하리오.”

이 호소문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이 발 빠르게 보도하며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대구에서 물꼬를 튼 국채보상운동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온 나라를 뒤덮는 순간이었다. 남자들은 너도나도 담배를 끊었고, 여자들도 비녀와 가락지를 빼고 쌀 한 줌씩을 아껴 성금에 보탤다. 재외 한인들도 적극 지원하면서 일본 유학생들, 미국·간도·연해주 한인 동포들도 기부금을 국내로 송금했다. 대구 출신 기생 앵무는 당시로는 큰 액수인 100원을 내놓아 주목받기도 했다. 1907년 2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성금은 총 230만 원으로 1900년대 당시 소 한 마리 가격이 10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모금 활동이 얼마나 활발히 이뤄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의 주인공은 이처럼 지극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

국채보상운동이 남긴 위대한 유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7월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8월 대한제국 군대 해산 등을 겪으며 점차 힘을 잃어갔다. 일제는 <대한매일신보> 발행을 가로막기 위해 영국인 사장 베텔을 국외로 추방하고 신문사 운영을 맡고 있던 양기탁을 의연금 횡령으로 구속했다. 이렇게 계속된 일제의 방해로 국채를 갚아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희망의 불꽃이 지속되기는 어려웠다.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은 끝내 좌절됐지만, 사회 참여와 성금 모금, 경제 자립이라는 민족적 유산을 남겼다.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 운동이라는 점,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문화운동이자 여성운



대한매일신보 국채보상기성회의 창립 취지문을 실었다.

국채보상단 연회사 국채보상의연금 마련을 위해 단연동맹회를 조직한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동, 언론캠페인운동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의가 크다. 국채보상운동이 남긴 정신적 유산은 1910년 이후 독립운동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 근대 역사의 한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2017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일본은 국채보상운동의 유네스코 등재를 막기 위해 유네스코에 금전적 압박 카드를 사용하며 훼방을 놓았다. 일본은 2년에 한 번씩 회원국별로 부담하는 유네스코 전체 분담금의 10%에 가까운 709억 4,6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어 입금이 센 상황이었다(한국의 납부 금액은 149억 4,500만 원가량). 일본은 분담금 납부를 미루며 유네스코 본부를 압박했다. 이런 과정에서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가 유네스코 위원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일본의 지식인들도 나서며 가까스로 등재가 결정되었다.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국채보상운동 취지문, 영수증, 장부, 언론 보도문 등)은 모두 2,472건이다. 경제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외적으로도 국가 부채를 국민이 대신 갚고자 한 운동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국채보상운동은 결코 실패한 운동이 아니다.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과 함께 성공의 역사로 자랑스럽게 기억될 것이다. ♣



“기적처럼 타오른 희망 불씨로 사랑의 온도 101.1도로 마무리”

지난 2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2019나눔캠페인’ 폐막식이 진행됐다. 추운 날씨였지만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기쁜 소식이 전해진 덕분에 폐막식 현장에는 훈훈한 온기가 퍼졌다.

마지막까지 이어진 뜨거운 성원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진행된 연말연시 이웃돕기 집중모금 캠페인 희망2019나눔캠페인이 1월 31일을 마지막으로 73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당초 목표액인 4,105억 원보다 47억 원 더 많은 4,152억 원(잠정 집계)을 모금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은 최종 101.1도를 기록했다. 마감 하루 전날인 30일까지도 수은주는 96.9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마지막 날 하루 만에 176억 원이 모금되며 9년 연속 목표액 달성이라는 영광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너 소사이터티 출범 11년 만에 2,000호 회원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사회적 기업인 제너럴바이오(주)와 지룸(주)의 서정훈 대표이사다. 또한 '사랑의우체통'에 매년 거액을 넣고 가는 익명

기부자 역시 어김없이 조용히 사랑을 베풀었으며, 광화문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의 작은 온기가 모여 700만 원 이상의 성금이 되는 등 크고 작은 나눔 이야기가 넘쳤다.

희망2019나눔캠페인 폐막식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기부자 대표로 가수 멜로망스 김민석 씨, 한국필립모리스(주) 김병철 전무, 안재남 소방관이 자리했고, 배분기관 대표로 김영화 회원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참석했으며,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과 김연순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예종석 회장은 감사 인사와 함께 “국민의 소중한 성금을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성심껏 지원하고, 빈틈없이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배분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로 기부자의 신뢰, 나눔 문화의 토양을 굳건히 다지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시민들 앞에서 변치 않는 사랑의열매가 될 것을 다짐했다. ❀

희망2019나눔캠페인에 함께한 이들의 따뜻한 목소리

지난 1월 5,000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리더 가입한 **기부자 대표 가수 멜로망스 김민석** “저희 작은어머니가 루게릭병으로 고생하셔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희귀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리기 위해 나눔리더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2009년부터 매년 연말 성금을 기부하는 ‘울산 키다리아저씨’ **기부자 대표 안재남 소방관** “고등학교 때 친구 여동생에게 심장병이 있었어요. 어느 후원자 덕분에 여동생은 무사히 수술을 마쳤죠. 강원도 산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나중에 여건이 되면 기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배분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배분기관 대표 회원종합사회복지관 김영화 관장** “사랑의열매 기금은 누군가에게는 그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죠.”



직장생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아너 가입 **기부자 대표 한국필립모리스(주) 김병철 전무** “제가 성취한 것은 사회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지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껴요.”

중앙회



'진들재인' 2년 연속 달력 판매 수익금 기부

문재인 대통령의 온라인 팬클럽 카페(cafe.daum.net/gentlemoon) '진들재인'은 2010년 7월에 개설해 현재 7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카페 촬영팀이 직접 촬영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 등을 활용해 달력을 제작한다. 진들재인은 지난 1월 제작한 달력의 판매 수익금 4,5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수익금은 팬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2019년 달력과 다이어리를 판매해 조성되었다.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며 훈훈한 나눔을 계속하게 되었다. 지난해 1월에는 일반인 판매를 포함해 1억 1,5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또한 당시 3년간 1,000만 원 이상을 기부 또는 약정한 모임과 단체가 가입 가능한 '나눔리더스클럽'에도 가입했다. 진들재인 카페지기는 "작년에 이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달력을 구매해준 모든 회원께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도 달력과 다이어리 등을 제작해 꾸준한 나눔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기탁한 성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치매 어르신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

현대백화점면세점, 저소득층 미혼모 지원금 1억 원 전달

현대백화점면세점(대표 황해연)이 지난 21일 서울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전달하며 업무협약을 했다. 지원금은 '고마워요 엄마' 캠페인 공동 진행을 위한 것으로 임신 및 출산 1년 이내의 저소득층 미혼모를 대상으로 산후 조리비와 생계비 지원, 육아나 취업·창업 관련 교육 등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대상을 선정해 경제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장원교육, 학생교육 위해 3억 원 상당 도서와 교구 지원

장원교육(대표 문규식)은 자사 인기 학습 도서와 교구 등 19만 8,073개를 서울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기부된 교육 도서는 총 3억 원가량으로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미혼모 가정 등 교육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문규식 대표는 "더 많은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나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

파인건설(주), 성금 5,000만 원 기탁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파인건설(주)(대표 이관근)이 이번 희망2019캠페인에도 동참했다. 지난 1월 21일 대전 사랑의열매 측에 5,000만 원 성금을 기탁했다. 이관근 대표는 "출고 어려울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나눔에 동참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대전 지역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 다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소외계층 위한 성금 1억 9,000만 원 기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지난 1월11일 대전 사랑의열매(회장 안기오)에 소외 계층을 위한 성금 1억 9,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한국타이어는 매년 희망나눔캠페인을 통해 성금 기탁을 하며 나눔 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윤정록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공장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 경영 실천을 통해 대전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2코리아, 1억 4,000만 원 상당 아이젠 기부

K2코리아(대표 정영훈)가 강원도민을 위해 1억 4,000만 원 상당의 아이젠을 기부했다. 강원 사랑의열매(회장 한만우)는 지난 2월 13일 강원도청에서 K2코리아 지철중 전무,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노진석 모금사업팀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진행했다. 지철중 전무는 “강원도민을 위해 아이젠을 기부하게 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춘천시나눔봉사단 저소득 세대 설 명절 음식 지원

사랑의열매 춘천시나눔봉사단(단장 이월선)은 설 연휴 동안 도시락 배달과 급식소를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과 복지사각지대 가구 300 세대에 명절 음식을 전달했다. 봉사단이 만든 300개의 행복박스에는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과, 국수, 사골육수, 통조림 등을 담았다. 이월선 단장은 “긴 연휴로 설 명절 기간에 흑시라도 식사에 어려움을 겪을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조금이나마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파주, 설 명절 지원사업 5,000만 원 전달

경기북부 사랑의열매(회장 이순선)는 2월 1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서 2019년 파주시 설 명절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어르신 550명에게 명절 선물과 함께 특식을 배식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3억 3,000만 원의 생계비와 명절 선물 세트를 지원했으며, 파주시도 생계비로 4,000만 원, 특식과 명절 선물 지원으로 1,000만 원을 배분했다.



광주시, '사랑의온도' 100도 달성

광주시는 희망2019나눔캠페인에서 5억 1,680만 원을 모금하여 사랑의온도 170도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21일 '희망나눔으로 행복한 광주' 공개방송 모금행사에서 모인 1억 2,400만 원을 비롯, 기업과 시민들의 기부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 경기 사랑의열매 강학봉 사무처장은 “따뜻한 광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을 보태 준 광주시와 시민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성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충남 사랑의열매, 설 명절 지원사업 성금 6억 원 전달

충남 사랑의열매(회장 이관형)는 설 명절을 맞아 충남도 내 저소득층 1만 2,987가구에 총 6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성금은 도내 15개 시군에서 추천받은 저소득층 가구의 차례상 차림비로 지원했다. 박은희 충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기부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기부자 초청 간담회

충남 사랑의열매(회장 이관형)는 육군회관에서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기부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의 명예와 예우를 증진하고자 국민과 장병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기금 조성 사업이다. 이 기금은 지난해 4월 충남 사랑의열매와 협약해 현재까지 1만 6,000여 명이 참여했고, 약 14억여 원의 기부금이 적립됐다. 마련된 기금은 작전과 훈련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병을 위해 사용한다.

프로골퍼 김해림 선수, 팬클럽과 설맞이 떡국 봉사

2월 2일, KPGA 프로골퍼 김해림(삼천리)이 팬클럽 해바라기(회장 이희진)와 청주 상당공원에서 4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떡국과 명절 음식을 대접했다. 김 프로와 해바라기 봉사단은 떡국 봉사 외에도 무료급식 봉사를 위한 쌀과 고기 등 진행 비용 총 800만 원을 상당 유니셰어무료급식공동체(대표 송은기)에 지원했고, 부족한 테이블과 의자 등 집기류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 교직원, 7년째 학생사랑 실천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 도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마련한 학생사랑 실천기금을 충북 사랑의열매(회장 이명식)에 전달했다. 2012년부터 실시된 이 기부 활동은 전년도에 모은 성금을 다음 연도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2017년까지 총 3억 5,841만 원을 모아 학생 790명의 의료비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생활비 등으로 지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생사랑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주)세진메탈, 이웃돕기성금 2,000만 원 기탁

(주)세진메탈에서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회장 한시준)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울산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캠페인에 이어 매년 고액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주)세진메탈 전윤석 대표이사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대미포조선, 이웃나눔 성금 2,700여만 원 전달

현대미포조선에서 2,700만 원 상당의 이웃나눔 성금을 울산 사랑의열매(회장 한시준)에 전달했다. 현대미포조선은 매년 이웃 돕기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매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방어동 관내 저소득 세대 백미 지원, 복지시설 사업비 지원, 명절 비용 지원 등으로 울산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경남 사랑의열매, 설 명절 위문금 5억 원 지원

경남 사랑의열매(회장 한철수)는 설을 맞아 위문금 5억 원을 경남도청에 전달했다. 이번 위문금은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 선발해 지원한다. 경남 사랑의열매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희망2019나눔캠페인 모금액 중 일반 기탁금으로 지원하며, 도내 저소득층 1만 세대에 각각 5만 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한철수 회장은 “경남도민의 성금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욕구 해소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한마음재단, 이웃사랑성금 1,000만 원 전달

한국지엠 임직원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은 설 명절을 맞아 창원시 관내 희망푸드마켓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창원 지역 저소득계층의 결식 문제 해소와 신선 식재료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며 먼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매월 1회 직접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은 2012년부터 성금 기탁은 물론 임직원 배우자들의 점심 식사 봉사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경북 사랑의열매,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 체결

경북 사랑의열매(회장 신현수)가 경상북도 출향민들이 고향 사랑을 기부로 실천하는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 출신 출향민과 재외 국민, 도민 등 경상북도에 연고를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나눔운동 모금 계좌(농협 705-01-190814/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1만 원부터 자유롭게 기부하면 된다. 성금은 저소득층 저출생 극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경북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사)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돼지고기 ‘한돈’ 10톤 기부

(사)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회장 최재철)가 설 명절을 맞아 4,5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10톤을 기부했다. 이에 따라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도내 10개 시군 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저소득 가정과 취약사회복지시설 등에 한돈을 지원했다. (사)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는 양돈업 종사 농민들이 이끄는 단체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2억 2,0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도내 소외 이웃에게 꾸준히 전달하는 등 상생·화합의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사랑의 저금통 기부한 ‘초롱이가족’ 삼남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초롱이 가족’ 봉사단으로 활동 중인 삼남매 양혁준(23), 양연재(21), 양혁재(18)와 어머니 김미순 씨는 지난 8일 제주 사랑의열매(회장 김남식)에 사랑의 저금통 3개와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다. 가족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아 목욕, 식사 보조,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도 이어오고 있다. 김미순 씨도 ‘2016년 우수공무원 표창 수여식’에서 받은 모범공무원수당 전액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사)재제주전북도민회, 3,000만 원 상당의 유모차 기탁

(사)재제주전북도민회(회장 김관후)는 제주 사랑의열매(회장 김남식)에 3,000만 원 상당의 유모차를 기탁했다. 유모차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미혼모 가정과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정진 재제주전북도민회 사무총장은 “고가의 유모차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전해져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 사랑의열매, 소외계층에 6억 8,000만원 설 명절 지원
 지난 한 해 대구 시민과 기업이 기부한 성금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했다. 대구 사랑의열매는 1월 25일부터 설날 전까지 쪽방 거주민, 노숙인쉼터 입소자, 저소득 주민 등 1만 3,700여 명에게 6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 소외된 이웃들이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금, 온누리상품권, 물품으로 전달했다. 이회정 대구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사랑의열매로 모이는 관심과 손길이 더 큰 행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구시의사회 구(군) 회장 4명, 나눔리더 동시 가입
 2월 13일 대구시의사회 구(군) 회장 4명이 동시에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노성규 늘시원한위대항병원 원장, 채상철 영남의원 원장, 심재인 대경영상의학과의원 원장, 박종원 대구연세안과 원장은 지역 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대구시의사회 임직원들은 평소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해왔다. 가입 예정자를 포함해 총 11명이 나눔리더로 함께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2018년 12월 권영진 대구시장이 나눔리더 1호로 가입한 후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

BNK금융지주, 나라사랑 태극기 나눔
 3·1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 우리 고장 애국지사 알리기 캠페인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BNK금융그룹에서 2월 20일 특별한 전달식이 열렸다. 올해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100주년을 기념하고,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자 감만중합사회복지관에서 ‘태극기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총 4,000개 태극기는 부산 지역 43개 사회복지관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해졌다.



용당어린이집 원생들, 고사리손으로 이웃돕기 성금 전달
 부산 남구 용당어린이집의 나눔 활동이 올해도 이어졌다. 부산 사랑의열매를 방문한 원아들은 1년 동안 모은 170만 원을 기탁했다. 용당어린이집은 매년 3월 나눔 교육을 실시해 1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한 후 이듬해 2월 사랑의열매에 전달한다. 2008년부터 이어온 기부는 누적 금액 1,200만 원을 넘었다. 한 원생은 “어려운 친구를 돕기 위해 군것질을 하지 않고 조금씩 모았다”며 내년에 또 이웃돕기를 하겠다는 기특한 소감을 밝혔다.

한국지엠,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스파크 30대 전달
 1월 31일 인천 사랑의열매는 한국지엠(주),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엠 한마음재단과 ‘쉐보레 네버 기브 업 캠페인 차량 기증식’을 열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5월부터 ‘쉐보레 네버 기브 업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도전하는 삶을 응원하기 위해 차량을 후원해왔다. 쉐보레 스파크 30대는 아동,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복지단체 30곳에 지원됐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착한일터 업무협약 체결
 부평구의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등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한섭) 임직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월 24일 착한일터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공단 임직원은 자발적 기부 참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박한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착한일터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나눔으로 행복한 인천에 기여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신년하례회 개최
 지난 1월 25일 광주 사랑의열매에서는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신년 하례회를 개최했다. 구제길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회장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19나눔캠페인 중간 경과와 2018년 모금 및 배분 결과 보고, 2019년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활동 계획 보고와 논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선한병원 최민선 원장이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89호 회원으로 가입하며 2019년 뜻깊은 출발에 함께했다.



(주)인천상사, 1,590여만 원 기탁
 2014년 2월 (주)인천상사(대표이사 김인천)와 광주 사랑의열매는 휴대폰 한 대를 판매할 때마다 1,000원씩을 기부하는 사회 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벌써 5년째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900여만 원을 기탁했다. 올해에도 1,593만 1,000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김인천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에 동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나눔의 뜻을 밝혔다.

전남

여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 3년 연속 경신'

전남 사랑의열매(회장 허정)이 함께하는 연합모금에 여주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까지 7억여 원의 재원을 마련해 3년 연속 경신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종완 위원장은 "함께하는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협의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오봉 여주시장은 "읍면동 협의체가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고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목포소상공인, 저소득 세대 위한 기부금 400만 원 전달

목포 관내 착한가게 10개소가 매월 정기적으로 1년간 모은 성금 400만 원을 저소득 세대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남 사랑의열매(회장 허정)에 전달했다. 목포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종식 목포시장, 김상균 전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과 10개소 목포소상공인이 참석했다. 하나시스템 에어컨 김동완 대표는 "나눔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이웃을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실천 가능하다"라고 나눔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전북

홍여우디톡스, 이그린 대표 나눔리더 가입

전북 지역에 2019년 첫 나눔리더가 탄생했다. (주)자연미(홍여우디톡스) 이그린 대표는 10년간 꾸준한 기부와 봉사 활동을 이어오다가 더 큰 나눔에 동참하기 위해 나눔리더 회원이 되었다. 1,000만 원을 전북체육중학교 장학금으로 기탁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학생 시절 큰 사랑을 주신 이주환 은사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꾸준히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가나안요양원, 착한가게 캠페인 동참

가나안요양원이 매월 3만 원씩 나누는 착한가게 캠페인 행렬에 동참했다. 가나안요양원은 평소에도 전주 사랑의열매 봉사단에서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전주봉사단장의 추천으로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장순주 원장은 "매번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착한가게 가입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긍정적 에너지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

흥덕산업 김윤회 대표 세종시 장학금 2천만원 장학금 기탁

세종시 흥덕산업 김윤회 대표가 세종 사랑의열매를 통해 세종시교육청에 장학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학생 1인당 30여만원 씩 약 66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윤회 대표는 "경제적인 차원보다는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응원한다"며 "지성과 인성이 훌륭한 학생들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중앙교회, 성금 150만원 전달

세종중앙교회(담임목사 정원재)가 이웃돕기 성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세종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보낸 것. 세종중앙교회는 2017년부터 150만원의 성금을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 정원재 담임목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기부
#9004
한 통에 2천원



ARS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천원



온라인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기념일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부산 154호
문화속 좋은문화병원 병원장
"나눔과 기부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산 155호
송지은
"따뜻한 우리 사회를 꿈꿉니다."



부산 156호
김종남 故 이수웅 아내(부산 25호) 배우자
"사회 책임에 대한 나의 작은 나눔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부산 157호
구재고 (주)평해 대표이사 회장
"나눔이란 행복해지기 위한 지름길."



부산 158호
최정자 구재고 아내(부산 157호) 배우자
"나눔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부산 159호
강영복 해인산업(주), 비조선(주) 대표이사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눕니다."



충남 86호
배성황 ㈜삼화원중 대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의 싹을 틔우기 바랍니다."

- 중앙회** 익명
- 강원 사랑의열매** 김미자 영지네포장마차 대표, 이경진 강남병원 기획실장, 박태권 추암횃집 대표
- 인천 사랑의열매** 익명, 이만우 유니스트코리아(주) 대표이사, 성숙희 OILTANK 대표



부산 160호
김은수 (주)동일스위트 대표이사
"즐거운 나눔, 우리가 꿈꾸는 내일."



부산 161호
문영석 골드해상(주) 대표이사
"나눔은 사랑과 기쁨이며, 행복과 건강을 가져옵니다."



부산 162호
이봉옥 신정택 아내(부산 100호) 배우자
"나눔은 배려."



부산 163호
이승희 양재생 아내(부산 55호) 배우자
"희망은 당신을 아름답게 합니다."



부산 164호
박성자 권중천 아내(부산 94호) 배우자
"건강한 사회는 '나눔'으로 시작됩니다."



강원 67호
정대환 동서산업(주) 대표
"앞으로도 황성을 위해 나눔 활동을 하겠습니다. 주변의 개인과 기업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경남 114호
이임영 (주)우아 대표, 정영화 아내(경남 35호) 배우자, 경남 7호 부부 아내
"나눔은 과거의 실천이고 미래의 희망이다.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배려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남편을 보면서 나눔의 길에 동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천 130호
송석만 재단법인송이 이사장
"한 손은 나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한 손이라는 말처럼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으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전북 56호
정인숙 신동식 아내(전북 14호) 배우자
"꾸준히 나눔에 참여하며 삶의 활력을 얻는 남편을 보면서 함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 69호
황인규 CNCITY에너지 대표이사 부회장
"앞으로 기부 문화에 더욱 앞장서고 소외계층이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광주 89호
최민선 선한병원 병원장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90호
이권수 고운건설(주) 대표이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 실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독자 의견



→ '사랑의열매'에 관해 내가 아는 것은 연말이 되면 직장에서 형식적으로 약간의 성금을 내고 받은 빨간색 배지 그리고 대형 마트 등에 있는 저금통에 가끔 아이들과 함께 동전을 집어넣는 기억이 전부였습니다. 간행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우연히 도서관에서 눈에 띄어 읽게 되었어요. 나눔을 행복으로 여기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분들과 새롭게 기부를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휴직으로 인해 가장 먼저 복지관 기부금 자동이체를 해지했던 나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워졌습니다. '노트 세 권과 연필 두 자루' 사연을 통해 작은 도움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고 이러한 도움의 따뜻한 기억이 또 다른 나눔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기부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송두이 · 경기도 하남시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담요

머그컵

에코백

→ 이번 호 기사 중 가장 유익했던 것은 '착한 기업-에듀윌'이었어요. 저도 자격증 공부 하면서 에듀윌 교재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역시나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 착한기업이었군요. 각박하고 살기 힘든 이 세상을 넉넉한 나눔으로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는 에듀윌이 2009년부터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었다니, 짝짝짝!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에듀윌은 합격이다' 구호가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에듀윌은 사랑이다'가 생각났네요. 앞으로도 이런 착한기업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기 저기 솟아나면 좋겠어요. 좋은 책! 멋진 책! 오래도록 함께할게요. - 채래운 · 전남 여수시

→ 장석주 작가님의 '집밥 생각나는 날' 에세이에 마음이 차분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표 얼갈이배추된장국에 담긴 사연을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읽는 내내 몽롱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유명 셰프 요리라 한들 어머니의 손맛처럼 귀하고 소중한 맛은 세상 어디에도 없겠죠. 매일 아침 어머니의 도마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축복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거 많고 한없이 부족한 저 자신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 정명진 · 서울시 강남구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우리도 오늘 첫!
사랑의열매 시작한다!

어리니까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액기부부터 나눔 활동까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요.

당신,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포털에 **사랑의열매** 검색하고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홈페이지 www.chest.or.kr